Republic of Kazakhs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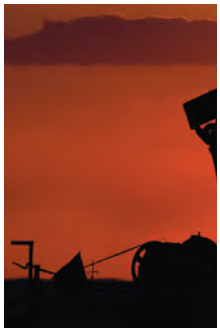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개황

2019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카자흐스탄 국기와 국가 문장



국기 해설

- 하늘색 바탕 가운데에는 32줄기의 햇살을 가진 금색 태양이 그려져 있으며, 태양 아래에는 황금 독수리가 날고 있는 형상의 문양이 그려져 있다. 깃대 쪽에는 카자흐스탄의 금색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다.
- 하늘색은 카자흐스탄의 민족과 문화의 조화를, 전통 문양은 카자흐스탄의 전통적인 문화와 예술을 뜻하며 태양은 풍요로움과 번영을, 햇살은 풍요로움과 번영의 기초를, 황금 독수리는 독립과 자유, 나라의 미래를 향한 비상을 뜻한다.



국가 문장 해설

- 국장 가운데에는 하늘색 바탕에 금색 햇살이 그려져 있다. 금색 햇살 바탕에는 유르트 가운데 하나이며 카자흐스탄의 전통적인 천막이기도 한 샤니라크의 원형 지붕이 그려져 있으며, 금색 햇살 위에는 금색 별이 그려져 있다.
- 국장의 양쪽을 두 마리의 금색 유니콘이 감싸고 있으며, 국장 아래쪽에 있는 리본에는 '카자흐스탄(ҚАЗАҚСТАН)'이라는 국명이 카자흐어로 쓰여져 있다.

카자흐스탄 지도


KAZAKHSTAN
National capital
Oblast' capital
Town, village
Airport
International boundary
Oblast' boundary
Main road
Secondary road
Railroad
RUSSIA
URAL MOUNTAINS
Ural
Zhayyq (Ural)
Oral
Furmanovo
Dzhambeyty
WEST KAZAKHSTAN
Kalmykovo
Aqtöbe
Khromtaū
Qarabu
Oyyl
Embi
ATYRAŪ
Caspian Depression
Atyrau
Zhem
AQTÖBE
Yrghyz
Shalqar
Ganyushkino
Aktumsyk
Ostrova Tyulen'i
Poluostrov Buzachi
Beyneu
Fort Shevchenko
MANGGHYSTAŪ
Ostrova Vozrozhdeniya
ARAL SEA
Aqtaū
Zhetybay
Ustyurt Plateau
CASPIAN SEA
Kazakskiy Zaliv
Aksu
Garabogaz Aylagy
TURAN
Amu Darya (Oxus)
TURKMENISTAN
0 100 200 300 400 500 km
0 100 200 300 mi
50°
55°
60°


65°
70°
75°
80°
85°
90°
55°
50°
45°
40°
KAZAKHSTAN
I A N F E D E R A T I O N
Irtysh
Tobol
abinsk
Kurgan
Petropavl
Omsk
Karasuk
Ertis
NORTH KAZAKHSTAN
Kachiry
Qostanay
Kzyltu
Kökshetau
Rudnyy
Pavlodar
PAVLODAR
QOSTANAY
Zhailma
Lebyazh'ye
Astana
Ishim
AQMOLA
Kurchatov
Semey
Öskemen
K A Z A K H
Tengiz Köli
Nura
Arqalyk
Turgay
Qaraghandy
Georgiyevka
Bestamak
Zaysan Köli
Torghay
EAST KAZAKHSTAN
Ayaguz
Zaysan
U P L A N D S
Urdzhar
Sayak
Alaköl
Zhezqazghan
Q A R A G H A N D Y
Balqash
Dzhambul
Saryshagan
Balqash Köli
Beskol'
Baikonur Cosmodrome
Taldyqorghan
BETPAQ DALA
Akbakay
A L M A T Y
Qyzylorda
Shu
Akshiy
Ili
Furmanovka
Tekes
QYZYLORDA
ZHAMBYL
Zhanatas
Shu
Almaty
Syr Darya
Zhambyl
CHINA
SOUTH KAZAKHSTAN
Bishkek
Ysyk-Köl
KYRGYZSTAN
Shymkent
Taxkan
Tarim
Tashkent
UZBEKISTAN
Samarqand
TAJIKISTAN
The boundaries and names shown and the designations used on this map do not imply official endorsement or acceptance by the United Nations.

CONTENTS

PART 1 개관

1. 개요 10
2. 지리 12
3. 기후 13

PART 2 약사

1. 고대 16
2. 카자흐 민족국가 형성(13~18세기) 16
3. 러시아로의 합병(18~19세기) 17
4. 소비에트 정권 수립과 사회주의 건설(1917~1990) 18
5.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부상과 카자흐스탄 독립 19

PART 3 정치

1. 정치 제도 24
2. 정치 정세 31

PART4 외교

1. 대외정책 기조 36
2. 2014-2020 대외정책 주요 목표 및 우선순위 과제 37
3.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39
4. 카자흐스탄의 역내 다자협력 참여 43
5. 카자흐스탄의 핵무기 포기와 비확산 정책 46

PART 5 경제

1. 개요 50
2.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51

3. 주요 경제정책 방향 55
4. 대외 통상 및 투자유치 현황 58
5.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현황 63

PART 6 한국과의 관계

1. 한-카자흐스탄 관계 개관 74
2. 외교 관계 일지 75
3. 주요 인사 교류 76
4. 협정 체결 현황 78
5. 한-카자흐스탄 경제 관계 79
6. 개발협력 현황 84
7. 문화 교류 86

PART 7 재외동포·재외국민 현황

1. 고려인 90
2. 재외국민 93

PART 8 북한과의 관계

1. 북한-카자흐스탄 관계 96
2. 북한-카자흐스탄 교류 현황 97

PART 9 부 록

1. 카자흐스탄 주요 인사 100
2 .카자흐스탄 정부 조직도 106
3.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2003.11.13, 서울) 107
4.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2004.9.20, 아스타나) 112
5.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2009.5.13, 아스타나) 119





PART 1

개 관

1. 개 요
2. 지 리
3. 기 후

1 개요

- 국명 :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 수도 : 누르술탄(Nur-Sultan, 인구 : 약 106.8만 명)
  ※ 토카예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아스타나市를 누르술탄市로 명칭 변경(2019.3.20)
  ※ 1997.12월 이전 수도 : 알마티(Almaty, 인구 : 약 180만 명)

- 면적 : 2,724,900㎢(면적 세계 9위, 한반도 12배, 남한 27배)
  ※ 접경국(국경선) : 러시아(7,599㎞), 중국(1,782.8㎞), 우즈베키스탄(2,351.4㎞), 키르기스탄(1,241.6㎞), 투르크메니스탄(426㎞)

- 인구 : 1,840만 명 (2018)
  ※ 평균수명 : 남성 67.5세, 여성 76.5세

- 민족 : 카자흐인(67.5%), 러시아인(19.8%), 우즈벡인(3.2%), 우크라이나인(1.5%), 위구르인(1.5%), 타타르인(1.1%), 독일인(1%), 기타(4.4%) 등
  ※ 한민족(고려인)은 약 10.7만 명(0.6%)으로 8번째

- 종교 : 이슬람교(수니파) 73%, 러시아정교 20%, 개신교 2%, 기타 5%

- 언어 : 카자흐어(국어), 러시아어(공용어)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7.1월 카자흐어 표기를 키릴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전환할 것을 제안,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예정

- 경제지표 (2018, EIU)
  - GDP : 1,702억 달러
  - 1인당 GDP : 9,977달러 (IMF)
  - 경제성장률 : 3.8%
  - 물가상승률 : 5.3%
  - 교역 규모 : 총 964억 달러 (수출 619억 달러 / 수입 345.1억 달러)
  - 환율 : 1USD = 375텡게(Tenge) (2019.2월 기준)

- 주요 자원 : 원유(세계 12위 , 확인매장량 300억 배럴), 가스(세계 25위, 매장량 1.1조㎥), 크롬(세계 1위), 우라늄·연(세계 2위), 은(세계 4위), 금(세계 16위) 등 다종·다량 광물 자원 보유

- 독립일 : 1991.12.16

- 행정구역(17개) : 3개 특별시(누르술탄(구 아스타나)·알마티·쉼켄트), 14개 주(州)로 구성

2 지리

- 카자흐스탄 면적은 272만 4,900만km²로, 서유럽 면적과 비슷한 크기
  - 카자흐스탄 북·서부를 관통하는 러시아와의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7,599km)이며,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과는 남부 국경을, 중국과는 동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다양한 지형이 분포되어 있음. 국토의 26%가 스텝과 숲이며, 10%가 산악 지역, 나머지가 사막과 반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토의 23%는 농업에 적절하나 나머지 70%는 경작이 불가능하며, 이동 방목에 적합

- 중부·서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토는 스텝 지역으로 평지
  - 카자흐스탄에는 총 45,262개의 호수가 있는데, 그중 45,248개가 1km² 미만 규모로 여러 개의 작은 호수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음.

- 동·남부와 동북부 지역 일부는 산악지대
  - 텐샨 산맥의 북단이 위치해 있는 동·남부 지역은 7,010m의 한 텡그리(Khan Tengri) 산을 최고봉으로 해발 4,500m 이상의 산들이 산재
  - 중국·몽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부 지역은 알타이 산맥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2,000~3,000m에 이르는 산악지대와 계곡으로 구성

- 북부 지역은 1950년대 말부터 추진된 소련의 미개척지 개간 정책으로 경작지의 약 70%에서 밀·보리·기장 등 곡물을 재배하는 곡창 지대
  - 카자흐스탄은 세계 10대 주요 곡물 수출국 중 하나이며, 특히 세계적인 밀 수출국

- 서부 및 중부에서 남부에 이르는 영토는 자갈·잡풀이 자라는 맨땅 등으로 이루어진 반사막 지역
  - 사막 지역으로는 아랄해 서쪽으로부터 카스피해에 이르는 우스튜르트(Ustyurt) 고원 사막, 아랄해 동·남쪽에 위치하여 우즈베키스탄과 공유하고 있는 키질쿰(Kyzylkum) 사막, 아랄해와 발하쉬(Balkhash) 호수 사이에는 베탁크달라(Bethakdala) 사막이 있음.

3 기후

-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영토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구릉지가 많아 뚜렷한 대륙성 기후를 보임.
  - 겨울은 북부의 경우 길고 추우며(1월 평균기온 -22℃), 중부는 추운 편(1월 평균기온 -18℃)이나 남부는 온난한 편(1월 평균기온 -3℃)
  - 여름은 보통 길고 건조한데, 북부는 따뜻하고(7월 평균기온 20~24℃) 중부는 더우며 남부는 무더운 날씨(7월 평균기온 28~30℃)

- 전반적으로 강우량이 적으며 카자흐스탄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풍이 특징. 겨울에는 남서풍이 북부 지역에, 북동풍이 남부 지역에 강하게 불고, 여름에는 북풍이 카자흐스탄 전 지역에 강하게 붊.





PART 2

약 사

1. 고 대
2. 카자흐 민족국가 형성(13~18세기)
3. 러시아로의 합병(18~19세기)
4. 소비에트 정권 수립과 사회주의 건설 (1917~1990)
5.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부상과 카자흐스탄 독립

1 고 대

- 카자흐스탄 내에서 발굴되는 유물들로 미루어 보아 기원전 1500~1000년경 현재의 카자흐스탄에 청동기 초기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카자흐스탄은 스텝 초원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유목 문화 특성이 나타남.

- 기원전 500년경 현재의 남부 카자흐스탄에 사카(Saka) 부족이 알타이산과 우크라이나에 이르는 방대한 스텝 지역에 거주하여 스키타이 문화의 일부를 이룸.

  ※ 사카 부족은 카자흐스탄 최고의 고고학적 발굴로 일컬어지는 '황금인간'(金 갑옷을 입은 전사 모형, 알마티 인근에서 발굴)을 남긴 부족

- 기원전 200년경 중국 북부로부터 훈족(Huns)이 와서 현재의 동부 카자흐스탄을 장악. 이후 유연(劉淵)·철륵(鐵勒) 등 다양한 유목 민족이 카자흐스탄 일대를 차지하였고, 6~7세기경에는 투르크(돌궐) 제국이 건설됨. 투르크의 언어와 문화는 현대 카자흐스탄이 자신들이 투르크 민족이라 여길 만큼 큰 영향을 줌.

2 카자흐 민족국가 형성(13~18세기)

- 1218~1221년경 몽골의 칭기즈칸이 카자흐스탄 동남부를 시작으로 현재의 카자흐스탄 전역을 석권하고 그의 첫째 아들 주치의 후손이 1240년 킵차크 한국(汗國)을 세움.

- 카자흐 한국(汗國)은 킵차크 한국(汗國) 일파인 우즈벡 민족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한 뒤 그중 유목 성격이 강한 부족이 초원지대로 분리되어 스스로를 카자흐라 칭하고 1465년 자니벡, 케레이 칸을 추대하여 건설

- 이후 카자흐 한국은 쥬즈라고 불리는 3개의 부족 통합체로 나뉨. 대쥬즈(Great Horde : 발하쉬 호수 남부 지역), 중쥬즈(Middle Horde : 카자흐 중부), 소쥬즈(Little Horde : 카자흐 서부)로 구분되는 쥬즈는 현재까지도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출신을 구분할 때 쓰임.

3 러시아로의 합병(18~19세기)

- 분열된 3개 쥬즈는 18세기 중엽 중가르(Dzungar)의 침공으로 소위 '대재난의 시대'를 맞게 되었으며, 1731년 소쥬즈의 아블 하이르 칸이 러시아 제국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시작됨.

- 그 후 러시아는 국경 지역에 요새와 오렌부르크 등 소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카자흐스탄 남부로 영향력을 확대, 19세기 초에는 카자흐스탄 북부와 중부에 러시아식 8개 행정구역이 출현하는 등 러시아의 식민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일부 반러시아 폭동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식민화 정책은 지속되었으며, 19세기 초 중·소올다에 대한 직할통치를 시작으로 1860년대에 대올다가 러시아에 편입되어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전역을 합병함.

4 소비에트 정권 수립과 사회주의 건설(1917~1990)

-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및 내전 과정에서 알라쉬 오르다라는 카자흐 민족 지식층의 자치 노력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 내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었으며, 1920년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으로 명명

  ※ 당시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즈'라 불리고 키르기즈는 '카라 키르기즈'라고 불림. 1925년 이 명칭은 정정됨.

- 소련공산당은 1924~1925년간 중앙아시아 지역에 민족을 기반으로 새로운 공화국 구성 개혁안을 추진한 결과, 1925.4월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이 탄생

  ※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광물 산업을 중심으로 한 카자흐스탄 산업화 및 강압적인 농업 집단화 과정을 본격 추진(1940년대 초까지 전체 농장의 97%가 집단농장화)

- 1936.12월 카자흐스탄은 소련 구성 공화국의 하나로 승격

- 소련은 광물 산업을 중심으로 한 카자흐스탄 산업화 및 강압적인 농업 집단화를 본격 추진하여 1940년대 초까지 전체 농장의 97%가 집단농장화. 1920년대 중반 4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유목민이 1920년, 30년대에 발생한 대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거나 인근 중국·터키 등으로 이주하면서 1930년대 후반에는 150만 명으로 감소. 이러한 인구 유출과 타민족의 이주가 카자흐스탄이 다민족국가가 된 주요 요인

- 1950년대 말 흐루시초프 공산당 서기장 시절에 추진된 미개척지 개간 정책으로 카자흐스탄 북부에 약 8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인들의 이주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식민화가 시작되어 1960년대 초에는 전체 930만 카자흐스탄 인구 중 러시아인이 43%, 카자흐인이 29%라는 기형적인 민족 구성 초래

- 소련공산당은 샤야흐메토프(Zhumabay Shayakhmetov) 및 쿠나예프(Dinmukhamed Konayev) 등 카자흐인을 카자흐스탄 공산당 서기장으로 임명하는 등 카자흐 민족에 대한 일부 배려가 있었으나 실권은 모스크바에서 행사

  ※ 1986년 카자흐스탄 공산당 서기장인 쿠나예프가 러시아인인 콜빈(Gennady Kolbin)으로 교체되자 대규모 폭동 발생

- 소련은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Semipalatinsk)를 핵실험장으로 이용하고 바이코누르(Baykonur)에 우주선 발사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
  - 1989년에는 소련 최초의 대규모 시민운동인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 반핵운동단체가 결성되었으며, 동 운동의 결과로 소련은 1989년을 마치막으로 세미팔라틴스크에서 핵실험을 중지

5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부상과 카자흐스탄 독립

- 1989.6월 카자흐스탄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나자르바예프는 1990.4월 카자흐스탄 최고인민회의에서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으로 피선된 데 이어 1991.12.1 치러진 최초의 대통령선거에서 98.7%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

- 199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소련 해체 과정에서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등과 함께 소련 체제를 유지하려 노력
  - 결국 카자흐스탄은 1991.12월 벨로베슈 협정 체결로 소련 체제의 와해가 기정사실화된 직후, 같은 해 12.16 소련 구성 공화국 중 가장 늦게 독립을 선언하고 같은 해 12.21 독립국가연합(CIS)에 가입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주요 일지(1990~현재)

1990.10.25	카자흐스탄공화국 주권 선언
1991.12. 1	대통령 선거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당선)
1991.12.16	독립 선언
1991.12.21	독립국가연합(CIS) 가입
1992. 3. 2	UN 가입
1993. 1.28	헌법 채택
1995. 8.30	신헌법 채택
1997.12.10	아스타나(현 누르술탄)로 수도 이전
1999. 1.10	대통령 선거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재선)
1999.10.12	토카예프(Tokayev) 내각 출범
2002. 1.29	타스마감베토프(Tasmagambetov) 내각 출범
2003. 6.13	아흐메토프(Akhmetov) 내각 출범
2004. 9.19	하원 선거
2005. 8.19	상원 선거
2005.12. 4	대통령 선거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3선)
2007. 5.21	헌법 개정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 규정 불적용)
2007. 8.18	하원 선거
2011. 4. 3	대통령 선거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4선)
2011. 8.19	상원 선거
2012. 1.15	하원 선거
2012. 9월	내각 개편
2013. 8월	지방자치단체장 간선 선출
2014. 4월	마시모프(Masimov) 내각 출범

2015. 4.26	대통령 조기 선거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5선)
2015.11.30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016. 3.20	조기 하원 선거
2016. 6.28	2017~2018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중앙아시아 최초)
2016. 9.13	사긴타예프(Sagintayev) 내각 출범
2017. 3.10	개헌 (권력구조 개편 및 초대 대통령 지위 불변성 명시화)
2017. 6.28	상원 선거
2018. 7.12	국가안전보장회의(NSC)법 발효 ※ 초대 대통령 종신의장직 부여
2019. 2.25	마민(Mamin) 내각 출범
2019. 3.20	토카예프(Tokayev) 대통령 취임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사임 발표(3.19)





PART 3

정 치

1. 정치 제도
2. 정치 정세

1 정치 제도

가. 헌 법

- 헌법은 일반조항,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통령, 의회, 행정부, 헌법위원회, 사법부, 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 최종 조항 등 총 9개 절, 9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권재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대의민주주의 및 대통령중심제 등을 규정하고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보장

- 1993.1월 채택된 카자흐스탄 헌법은 1995.8.30 대통령 권한 강화, 상·하원 양원제, 1998.10월 대통령 선거일 변경, 2007.5월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 철폐, 의회 권한 강화, 2017.3월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몇 차례 이루어짐.
  - 2017.3월 개헌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정부와 의회에 분산하여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였으나, 초대 대통령이 수립한 국가 활동 원칙과 초대 대통령의 지위는 변경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해 오히려 초대 대통령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분석이 있음.

나. 대통령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며, 특정 상황 하에서 의회를 대신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효력을 발휘하는 대통령령 발령권을 갖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

  ※ 대통령 유고 시 상원의장→하원의장→총리 순으로 잔여 임기 동안 대통령 대행

- 선출 방법
  - 18세 이상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 (비밀·보통·평등·직접선거)

    ※ 피선거권은 35~65세 / 선거일 현재 15년 이상 카자흐스탄 거주자, 고등교육 이수자, 정부 부처 공무원 및 선출직 정부 부처 직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 카자흐어 완벽 구사자, 등록된 정당 및 단체에서 지명한 자로 제한

- 정기 대통령 선거는 12월 첫째 일요일에 실시

  ※ 헌법상 차기 대선은 2020.12.6

- 1차 투표에서 투표자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2차 투표에서 단순 최다 득표자가 당선)

  ※ 선거 다음 달인 1월 둘째 수요일에 취임

• 주요 권한 및 기능

- 외교·국방·내정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정당의 정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 상·하원의 동의를 받아 총리,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하며 상원의 동의 하에 검찰총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임명
- 국가의 독립성, 국가기관의 정상 기능과 영토보전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계엄 및 선전포고권
- 특정 상황 하에서는 의회의 위임을 받아 입법권을 행사하며,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 발령권

  ※ 상·하원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법권을 대통령에게 위임 가능 (헌법 제53조 제4항)

  ※ 긴급입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의회가 이를 입법 조치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 발령권을 보유 (헌법 제61조 제2항)

- 의회 해산권

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내 정치 안정, 헌법 질서,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 국제무대에서의 국익 보호를 위한 국가안보 및 국방 분야 통합 국가 정책을 조정·이행하는 헌법 기구로, NSC법이 2018.7.12 발효

-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총리, 국무장관, 대통령 행정실장, 안보회의 서기, 검찰총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외교장관, 국방장관, 내무장관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종신 의장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임무와 기능

- 국가안보, 국방력 강화, 법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정책 기획·검토·이행 평가 및 이를 위한 결정·권고 채택, 국가기관 업무 조정

- 국가 발전과 관련되는 전략 문서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국제정세 평가, 국가안보에 대한 대내외 위협 요인 예측 및 대응 방안 제안 및 결정
- 국가 프로그램, 법안, 대외정책 및 주요 국가 이니셔티브 분석 및 평가
- 국가안보, 국방, 법질서 유지를 위한 법집행 및 예산 통제, 동 분야 정부의 주요 활동 및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
-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장 후보자 검토

•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2019.3.19 퇴임하였으나 초대 대통령으로서 NSC 의장직을 유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실상의 통치권 행사 가능

라. 의 회

1) 구성

(1) 상원(Senate)

• 의석 : 49석 (임기 6년)

• 선출 방식
- 14개 주(Oblast) 및 3개 특별시(아스타나·알마티·쉼켄트) 의회에서 각 2명씩 선출하며 대통령은 15명의 상원의원을 임명
- 3년마다 상원의원의 1/2을 재선출하며,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으로 최근 10년간 국내 거주자로 제한

• 상원의장은 대통령이 후보를 추천하고 상원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하며, 대통령 권한 조기 해지, 면직, 대통령 사망 시 상원의장이 잔여 임기 동안 대통령직 승계
※ 대통령직 승계 순서는 상원의장 → 하원의장 → 총리 순이며,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은 개헌 발의 불가

(2) 하원(Majilis)

• 의석 : 107석 (임기 5년)

• 선출 방식
- 비밀·보통·평등·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 98석은 정당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고, 9석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Assembly of the People of Kazakhstan)'에 할당

※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는 1995.3월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자문기구로 소수민족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민족 간 화합과 안정을 목표로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에 헌법기관으로 승격

-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이 직접·비밀투표로 선출

2) 주요 권한 및 기능

(1) 양원 합동회의

- 개헌발의권 및 대통령의 개헌 요청으로 개헌 발의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1개월 내에 재심의하여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재결의할 경우 대통령은 동 법률안에 일주일 내에 서명
  - 특정 상황 하에서는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1년간 입법권을 위임
- 총리·중앙은행 총재 임명 동의권 및 정부 불신임권 보유
  -재적의원 1/5 발의와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정부 불신임 결의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6개월 내에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각료 해임을 재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각료 해임 의무
- 대통령 제의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 의무 수행을 위해 군대 사용에 대한 의결권 보유

(2) 하원의 심의 및 의결 후 상원에 회부

- 법안 및 예산안, 행정구역 재조정
- 국제조약 비준

(3) 상원 단독회의

- 대통령의 제청으로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선출권
- 검찰총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권
- 최고사법위원회(Highest Judicial Council)에 2명의 위원 파견권
- 하원에 의한 대통령 탄핵소추 심의 및 동 탄핵소추 심의 결과를 양원 합동회의에 상정

(4) 하원 단독회의

- 입법권, 예산심의권 및 중앙행정기관 감독권
- 대통령 선거 공고
- 대통령에 대한 반역죄 상정

(5) 상임위원회

- 상·하원은 각각 7개 이하의 상임위원회를 구성
  - 상·하원은 동수의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에 합동상임위 구성 가능

마. 행정부

-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해 구성되어 대통령 및 상·하원에 대해 책임을 지며, 총리는 임명 10일 내에 행정부 구성과 조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여야 함.
  - 총리는 대통령이 하원의 제 정파와 협의하여 총리 후보를 하원에 추천하고 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
  - 총리는 임명 이후 한 달 내에 내각 구성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될 경우 두 달 내에 새로운 내각 구성안 제출
  - 총리가 하원과 협의하여 각료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각료를 임명
    (외교·국방·내무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 헌법 44.1조)

- 행정부 각료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사임
  - 대통령은 총리 해임권을 보유하며, 총리가 해임될 경우 내각 전원이 사퇴
  - 내각은 의회가 정부 불신임 결의 시 내각 해산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대통령은 일주일 내에 내각 사퇴 여부를 결정

- 내각은 법령제안권, 의회 결정에 대한 시행규칙 결정권, 의회가 승인한 예산 배분권, 조약 체결권, 기타 정부 활동 및 산하 행정기관 감독권 등을 보유

바. 헌법위원회 (Constitutional Council)

• 구성

- 위원장 및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 위원은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각 2명씩 임명

• 임기

- 6년이며 3년마다 위원의 1/2를 재임명
- 전직 대통령은 헌법위원회 종신위원으로 재직

• 권한

- 대통령, 상·하원 의장 및 재적의원 20% 이상의 의회 의원 및 총리가 제기하는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권 보유
  - 대통령 선거, 총선 및 국민투표의 공정성 여부 결정
  - 의회에서 채택된 법률을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 심의
  - 조약의 합헌성 여부 심의 및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합헌성 여부 심의

사. 사법부

1) 법원의 구성

• 구성

- 대법원(Supreme Court), 주법원(Provincial Court), 지방법원(Local Court)
- 특별법원 설치는 헌법 75조 4항에 의해 금지

•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

- 최고사법위원회의 추천에 기초하여 대통령 제청으로 상원에서 선출

• 주법원장 및 주법원 판사는 최고사법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 기타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판사는 판사자격심의위원회의 추천과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2) 최고사법위원회(Highest Judicial Council)

- 최고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 위원 : 헌법위원회위원장·대법원장·법무장관·검찰총장·상원의원 중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인사 및 기타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로 구성

3) 판사자격심의위원회(Qualification Collegium of Justice)

- 하원 의원 중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자, 판사, 검사, 법률학자, 기타 법조계 종사자 중에서 선임된 인사로 구성

아. 카자흐스탄의 지방행정제도

- 조직
  - 3개 특별시(누르술탄(구 아스타나)·알마티·쉼켄트), 14개 주(Oblast)로 구성

- 시의회 및 주의회(Maslikhat)
  - 시의회 및 주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직접·보통·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 (피선거권은 20세 이상)

- 지방정부
  - 경제·사회정책 입안, 시행규칙 결정 및 시의회 또는 주의회가 지정한 예산에 대한 배분 및 시행,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권 및 기능 수행
  - 특별시장 및 주지사(Akim)는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지방자치 권한 강화를 위해 군 단위 이하 지방정부 장들을 지방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 지방정부의 독립적 행정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중앙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지침 부여 및 감독 기능을 수행
  - 주민은 지방정부 결정 사항에 대해 국가행정법원에 제소 가능

2 정치 정세

가. 개 관

- 카자흐스탄은 1991.12월 독립 이후 석유 등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민족 및 종교 간 화합 정책, 균형외교를 통한 안정적 대외환경 조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국가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음.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1989.6월 소련 카자흐스탄 공산당 중앙위 제1서기, 1990.4월 대통령에 선출된 데 이어, 독립 직전인 1991.12.1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2015.4월 대선에서 5연임에 성공하여 2019.3월까지 약 30년간 집권하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향유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높은 국정 장악력과 지도력을 보여주었으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반대세력을 용인하지 않음에 따라 집권세력에 도전할 수 있는 야당 부재

- 2014.1월 연두교서에서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내걸고 경제발전 및 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
  - 비자원 분야 제조업 육성 정책, 녹색경제 전략, 인프라 개발을 위한 누를리 졸(빛의 길) 프로그램,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그램 등 분야별 발전 전략도 함께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발전 기회' 제하 연두교서에서 인프라 개선, 디지털화, 인적자원 개발, 반부패, 법의 지배 등 강화 계획 제시(2018.1월)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초대 대통령이자 국가지도자로서의 유산을 남기기 위한 프로젝트들도 추진
  - 2017년부터 루하니 장그루(의식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역사, 전통, 문학, 문화·예술 홍보, 국민의식 개혁과 사회통합 강화 모색
  - 2025년까지 카자흐어 표기를 키릴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단계적 전환 추진
  - 카자흐스탄의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제안(2018.11월)

나. 최근 정세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2019.3.19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임을 발표하였으며, 헌법에 따라 토카예프 상원의장이 2019.3.20 대통령으로 취임

※ 카자흐스탄 대통령 권한의 조기 해지, 면직, 대통령 사망 시 잔여 임기 동안 대통령의 권한은 상원의장에게 이양(헌법 48.1조)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78세(1940.7.6 生)의 고령으로, 퇴임 후 대비 및 권력이양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 왔음.

- 초대 대통령이 수립한 국가 활동 원칙과 초대 대통령 지위 불변(2017.3월 개헌)
- 등록된 정당이나 단체만 대선 후보 지명 가능 (2017.6월 선거법 개정)
- 언론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 (2017.12월 언론법 개정)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권한을 강화하고 초대 대통령에게 NSC 종신의장직 부여 (2018.7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정)
- 측근 인사인 카시모프 전 내무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서기로 임명(2019.2월)
- 대통령 권한 조기 종료의 사유로 사임도 포함된다는 헌법위원회 해석(2019.2월)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민생안정을 통해 자신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권력이양 프로세스를 앞두고 사회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는 사회정책을 추진

- 사회통합과 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 보급, 저소득층 세금 감면, 이공계 지원, 소액대출, 가스 공급 지역 확대 등 '5대 사회 이니셔티브' 발표(2018.3월)
- '카자흐스탄 복지 증진 :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제하 대국민 국정연설을 통해 기존 정책 이행 점검 및 각종 경제·사회 현안 해결 강조(2018.10월)
- ▲소득증대 및 저소득층 지원 ▲주택·교육·보건·의료 개선 ▲지역 균형발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마민(Askar Mamin)을 총리로 하여 구성(2019.2.25)된 새 내각에 동 정책의 즉각적인 이행 주문 (2019.2월 누르오탄당 전당대회)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사임은 권력이양을 위한 면밀한 사전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대체로 국내 정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국내 및 대외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 집권여당인 누르오탄당 총재, 헌법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국정에 지속 참여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 행사 예상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사임 연설에서 본인이 NSC 의장으로서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프로세스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
  - 토카예프 대통령도 취임 연설에서 국가 전략 개발 및 결정 과정에서 초대 대통령의 권위 있는 의견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

- 토카예프 대통령은 외교장관, 부총리, 총리, 상원의장, 유엔 제네바 사무소장(사무차장급) 등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자르바예프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전환기에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장녀인 다리가 나자르바예바 상원 외교·국방·안보 위원장이 2019.3.20 상원의장으로 선출되어 토카예프 대통령과 함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지목

- 차기 대선 시기 및 여당 후보로 누가 출마할 것인지 등 권력이양 프로세스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는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관측
  - 차기 대선 시기는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잔여 임기 만료 시점(2020.4월), 관련 헌법 규정(대통령 임기 5년, 대선은 12월 첫째 일요일에 실시 등), 정치적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될 것으로 전망
  - 대선 후보로는 지도자로서의 자질, 국정 경험, 대중적 인기 등이 고려될 것이며,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





PART 4

외 교

1. 대외정책 기조
2. 2014-2020 대외정책 주요 목표 및 우선순위 과제
3.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4. 카자흐스탄의 역내 다자협력 참여
5. 카자흐스탄의 핵무기 포기와 비확산 정책

1 대외정책 기조

-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전하고,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발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2014~2020년 대외정책 개념(2014.1.30 승인)을 발표하여, 동 기간 중 대외정책 주요 목표와 우선순위 과제 제시

- 러시아와의 전통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되 지나친 의존을 피하기 위해 미국·EU·중국·일본·한국·터키·중동 국가 등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다변화 외교(multi-vector diplomacy)를 추진

- 주변국들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면서 국제기구·지역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핵폐기 경험을 기초로 비확산 주도국, 국제분쟁 중재 등 평화애호국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강화를 적극 모색
  -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주도
  - 중앙아 비핵지대화 창설(2009.3월 발효) 주도, IAEA 저농축우라늄은행 설치(2017.8월), 핵무기금지조약 채택(2017.7월)에 적극 참여하고 동 조약에 서명하는(2018.3월) 등 핵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적극 활동
  - 아시아협력대화(ACD)(2008.10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2010), 상하이협력기구(SCO)(2011), 집단안보조약기구(CSTO)(2012), 독립국가연합(CIS)(2015), 유라시아경제연합(EAEU)(2016) 의장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17~2018) 수임
  - 이란 핵 협상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서방-러시아 중재, 시리아 평화협상(아스타나 프로세스) 주선,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노력 기여
  - 세계무역기구(WTO) 가입(2015.11월) 및 OECD 가입 추진 중

- 국제 테러리즘, 종교적 극단주의, 마약 등의 확산을 차단하고, 중앙아시아 지역협력 및 對아프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안정화 및 공동번영을 모색하여,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
  -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2018.3월, 아스타나(현 누르술탄)),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무역·투자·인적교류 등 협력 강화, 對아프간 원조 제공 등

2 2014~2020년간 대외정책 주요 목표 및 우선순위 과제

가. 2014~2020년간 대외정책 주요 목표(11개)

- 국가안보 및 국방, 주권 및 영토 보전
- 세계 및 지역 안보 강화
- 국제사회에서의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형성
- UN과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민주평화 질서 구축
- 국제 및 지역 경제 통합 강화
- 카자흐스탄-2050 국가 전략 목표의 성공적 이행, 국민의 높은 생활 수준 달성, 다민족 사회, 법치국가, 민주제도 강화, 인권 및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호혜적인 대외 여건 마련
- 산업다변화, 산업기술 발전, 국가경쟁력 제고
- 단계적인 녹색성장 국가로의 전환, 2050년 세계 선진국 30위권 진입
- 민족 및 문화적 고유성 보존
- 해외 거주 카자흐스탄 국민 보호
-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및 카자흐어 지원

나. 2014~2020년간 대외정책 우선순위 과제

- 중앙아시아 지역 안정 및 경제발전, 안보 강화
- 유라시아 통합, 관세동맹(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강화
- 국제법에 의거한 국경선 확정 및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결정
- UN, CICA, SCO, OIC 회원국으로서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 및 협력 강화
- 국제 및 지역 안보 강화
  -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 '핵무기 없는 세상' 창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새로운 도전 (극단주의, 테러, 마약 밀매, 사이버범죄 등) 대처

3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가. 러시아

- 러시아는 7,599km에 달하는 국경선을 접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내 360만(인구의 약 20%) 러시아계 국민이 존재하는 등 지리적·역사적 관계에 기반하여 카자흐스탄이 가장 중시하는 전략적 동반자

- 양국은 정상들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매년 10회 이상 회동하고, 독립국가연합(CIS),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상하이협력기구(SCO),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등 지역기구 차원에서도 긴밀하게 협력 중

- 2018년 교역량 176억 달러(전체의 18.8%)로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의 1위 교역 상대국
  ※ (수입) 124억 달러, 점유율 1위/38.1%. (수출) 52억 달러, 점유율 4위/8.5%
  - 2010년 관세동맹(CU), 2012년 단일경제구역(CES),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출범에 따른 시장 통합화,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 등으로 러시아산 제품의 수입 점유율 증가 추세(2010년 22.8% → 2018년 38.1%)
  - 9천여 개의 러시아 관련 법인이 카자흐스탄 내 활동 중이나, 對카자흐스탄 투자액은 경제 밀접도에 비해 적은 편(2018.3분기 기준 129억 달러, 누적 투자 7위)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에 우호적 국가로 분류되나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시각이 있으며, 러시아에서도 카자흐스탄의 서방과의 관계 강화, 2025년까지 카자흐어의 라틴어 문자 표기 전환 추진 등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음.

나. 중 국

-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중앙아시아 및 중국 서부 지방의 안정과 발전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이 인근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중시하고 중국의 국제 정치·경제적 위상이 커짐에 따라 양국 관계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비약적으로 발전

• 양국은 2013년 이후 약 20회의 정상회담(시진핑 주석 카자흐스탄 3회 방문 포함)을 개최하는 등 양자 차원은 물론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등 지역 안보 기구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

• 경제적으로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분야에 적극 진출한 데 이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양국 교역·투자 관계도 급속히 확대

-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와 국부펀드는 광구 매입, 카자흐스탄 석유회사 지분 매입을 통해 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 분야에 진출한 데 이어, 카스피해-서중국 송유관,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중국 가스관 건설
- 시진핑 주석이 2013.9월 나자르바예프 대학에서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을 제안한 이래, 카자흐스탄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핵심 참여국으로 부상했으며, 2016년부터 국경 지역에 호르고스 내륙항 공동 운영 중
- 2018년 양국 교역량은 117억 달러(전체의 12.5%), 2018년 3분기 현재 중국의 對카자흐스탄 누적 투자액은 167억 달러를 상회함으로써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3위 교역 상대국이자 4위 투자국으로 부상

※ (수입) 54억 달러, 점유율 2위/16.5% (수출) 63억 달러, 점유율 2위/10.3%

• 그러나 카자흐스탄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反중국 정서가 존재하고,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중국의 공격적 투자 진출, 저가 중국 상품 및 중국 노동력의 유입 등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한 중국 경계론도 대두

다. 미 국

• 미국은 독립국으로서의 카자흐스탄을 세계 최초로 승인(1991.12.25)했으며, 카자흐스탄은 전방위 외교의 틀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200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지속 발전 중

• 미국은 카자흐스탄 독립 후 비핵화를 적극 지원한 데 이어, 엑슨모빌·셰브론 등 미국계 석유 메이저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 對카자흐스탄 투자 누계가 2018년 3분기까지 349억 달러에 달해 전체 2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국이자 5대 교역국의 하나

• 카자흐스탄은 9·11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노력을 지지해 왔으며, 미국도 비확산, 테러리즘 및 극단적 폭력주의 대응 등 파트너로서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중시

• 2018.1월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기 양국은 비확산, 지역안보, 국방/안보협력, 경제협력, 인적자원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확대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미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C5+1) 형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함.

라. EU

• 카자흐스탄은 전방위 외교의 일환으로 EU와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2008년 연두교서에서 유럽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카자흐스탄 법·제도의 유럽 수준으로의 향상을 목표로 제시

• 카자흐스탄과 EU는 2015.12월 '확대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EPCA)'을 체결하여 안보,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 혁신, 법 집행,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음.

- EU는 카자흐스탄 수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자원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카자흐스탄산 원유 수입 증가세
- EU와의 교역은 최근 5년간 카자흐스탄 대외 교역량의 약 40% 차지

※ 2018년 교역액은 337억 달러(카자흐스탄 수출 310억 달러(전체 수출의 51%), 수입 67억 달러(전체 수입의 20.5%))로 전체의 40.3%에 해당

- EU는 2018년 상반기 카자흐스탄에 123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2019.2월 현재 유럽 회사들이 총 30억 달러 규모의 24개 투자 프로젝트 이행 중

※ 카자흐스탄-EU 간 EPCA는 현재 잠정 적용 중이나, EU 개별 회원국의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2019년 정식 발효할 것으로 전망

• EU는 2007년부터 '중앙아시아 전략'을 수립하여 對중앙아시아 협력의 틀 내에서 무역·투자, 안보, 테러, 거버넌스, 반부패, 환경, 인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 중

- EU는 2019년 새로운 중앙아시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며, 동 작성을 위해 중앙아시아 정부 및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한 협의 진행

마. 중앙아시아 국가

- 카자흐스탄은 자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안정적 대외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 구축과 역내 안정·공동번영 달성을 위한 협력 강화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순위 과제의 하나로 적극 추진

- 2018.3월 누르술탄(구 아스타나)에서 제1회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Consultative Meeting)가 개최되어 경제·통상, 초국경 수자원 이용, 지역안보, 문화·인문교류 등 분야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

- 중앙아시아 국가 간 초국경 수자원 활용 관련 상이한 우선순위와 이해상충, 국경 문제 등이 협력의 장애 요인이 되어 왔으나, 국경 문제도 해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수자원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
  - 카자흐스탄은 국경 획정 문제를 마무리하고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관·출입국 절차 개선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對중앙아시아 교역 비중이 5% 수준이나 높은 성장세(2017년 전년 대비 35% 증가) 관찰
  - 수자원 문제 관련 카자흐스탄은 아랄해살리기국제기금(IFAS) 효율성 제고와 중앙아시아 국제 수자원·에너지 컨소시엄 설립 문제 검토를 제안

- 카자흐스탄은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불법 마약 거래, 초국경 및 조직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안정화를 위한 對아프간 협력도 적극 시행 중

4 카자흐스탄의 역내 다자협력 참여

가.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 (CICA :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이 1992년 아시아에서의 신뢰 구축과 분쟁 예방을 위해 OSCE와 유사한 지역안보협의체 설립을 제의하여, 1999년 CICA 외교장관회의, 2002년 정상회의(현장 채택), 2006년 정상회의(사무국 설립, 현재 누르술탄(구 아스타나) 소재)를 거쳐 활동을 본격화
  -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특별실무그룹회의, 신뢰구축 분야(군사·정치, 새로운 위협 및 도전, 경제, 환경, 인간) 전문가회의 개최
  - 2019.6월 제5차 정상회의 타지키스탄 두샨베 개최 예정

    ※ CICA 회원국은 카자흐스탄·중국·러시아·인도·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한국(2006.6월 가입) 등 27개국이며, 미국·일본 등 8개국과 유엔 등 5개 국제기구가 옵서버로 활동 중

-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에서도 OSCE와 같은 집단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제안하고 있으며 (2014.5월 상하이 개최 제4차 CICA 정상회의 등 여러 계기), 동 실현을 위해 OSCE, CICA, ARF 간 공동협의회 개최를 제안

나.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 CSTO는 구소련 해체로 인한 CIS 국가 집단안보 및 국제 테러, 불법 무기, 마약, 조직범죄, 불법이민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구
  -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회원국의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되며, 2002.10.7 유엔과 CSTO의 헌장과 법적 지위에 대한 협정 서명

- 1992.5.15 6개국(아르메니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러시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정상회의(타슈켄트) 시 집단안보조약(CST)으로 출발하여, 2003.4.28 정상회의(두샨베) 시 집단안보조약기구로 전환

- 우즈베키스탄은 2012.6.28 회원국에서 잠정 탈퇴하였으며, 현재 CSTO 회원국은 벨라루스(1993.12.31 가입) 포함 6개국

• 카자흐스탄은 1994년 알마티에서, 2004년, 2011년, 2018년에는 누르술탄(구 아스타나)에서 CSTO 정상회의를 주최

- 누르술탄(구 아스타나)에서 2018.11.8 개최된 정상회의에서는 CSTO 통합본부 개혁 및 CSTO 위기대응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 완료, CSTO 회원국 간 무기·군사장비 표준화 조정위원회 설치, 테러리즘 대응 등 의장국으로서 카자흐스탄이 설정한 우선순위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였다고 평가

다. 상하이협력기구(SCO :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1996.4월 상하이 개최 5개국(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정상회의 시 최초 언급되어 2001.6월 우즈베키스탄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6개국 정상회의 시 상하이협력기구 창설을 선언

- 2002.6월 채택한 상하이 헌장이 2003.9월 발효되어 국제기구화되었으며, 2017.6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가입으로 회원국이 8개국으로 증가

• 상하이 5개국 그룹은 1996년 중국과 국경을 공유하는 CIS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나, 2001년 SCO가 창설 이후 안보(테러리즘, 분리주의, 급진주의 대응)·군사(공동군사훈련)·경제·문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SCO는 정상회의, 정부수반회의, 외교장관회의를 매년 개최 중이며, 카자흐스탄은 2005년, 2011년, 2017년 아스타나에서 정상회의를 주최함.

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 Eurasian Economic Union)

• 1994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유라시아 통합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그 후 관세동맹, 유라시아단일경제공간(SES) 등을 거쳐 2014.5.29 누르술탄(구 아스타나)에서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3개국이 EAEU 창설 조약을 체결하고 2015.1.1 출범

• EAEU는 유라시아 국가 간 무역장벽 제거와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회원국 (5개국)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2015.1.2 가입), 키르기스스탄(2015.8.12 가입)

• EAEU의 FTA 현황 : ▲베트남 2015.5월 FTA 체결 및 2016.10월 발효 ▲이란 2015년 협상 시작, 2018.5월 한시(3년간) FTA 체결 ▲중국 2015년 협상 시작, 2018.5월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인도·싱가포르 등과 협상 진행 중

• 2018년 카자흐스탄과 EAEU 회원국 간의 교역액은 191.1억 달러로 카자흐스탄 전체 교역량(934.9억 달러)의 약 20% 차지

5 카자흐스탄의 핵무기 포기와 비확산 정책

가. 핵무기 포기

- 카자흐스탄은 1991.12월 소연방이 붕괴되면서 전략적 핵탄두 1,410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04기, 전략폭격기 40대 등 핵 전력을 물려받아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4위의 핵 강국이 됨.
  - 소련은 세미팔라틴스크(카자흐 북동부, 현재 누르술탄(구 아스타나)에서 약 500km에 위치) 핵실험장에서 1949~1989년간 총 456회(지상 116회, 지하 340회)의 핵실험을 실시,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방사능 노출 피해를 입음.

- 방사능 오염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던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소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절인 1991.8.29 카자흐스탄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고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을 폐쇄한 데 이어, 독립 직후 핵 억지력을 유지하자는 보수 민족주의자들의 주장과 '이슬람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대가로 재정지원을 해주겠다는 일부 아랍 지도자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핵포기 결단을 내림.
  - 카자흐스탄은 1992.5.23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리스본 의정서에 서명하여 START에 가입(1992.7.2 비준)하고 비핵국으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을 약속한 데 이어 미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1995년까지 전술 및 전략 핵무기, 무기용 우라늄과 플루토늄 반출 및 제거를 완료하여 비핵화를 이행

- 그 대가로 카자흐스탄은 핵보유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투자와 경제 지원을 받아 국가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룸.
  - 또한 평화애호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러시아·중국·미국·EU 등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

나. 비확산 정책

- 카자흐스탄은 1992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가입, 1993년 IAEA 가입, 1994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O) 서명 등 핵 비확산 체제에 적극 참여하며, 비핵화 분야 선도국으로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음.

- 2006.9월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이 중앙아시아 비핵지대(CANWFZ) 조약에 서명(2009.3월 발효)하였으며,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제의로 2009.12월 유엔 총회에서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 폐쇄일(1991.8.29)을 '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로 제정하여 매년 8월 29일 이를 기념함.

- 또한 2012년부터는 전 세계 핵실험 금지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발효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TOM (Abolish Testing-Our Mission) 캠페인을 실시

- 2013년에는 P5+1과 이란 핵협상 장소(알마티)를 두 차례 제공하며,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타결에 기여했으며, 핵무기금지조약(TPNW) 채택(2017.7.7) 과정에 적극 참여, 2018.3.2 동 조약에 57번째로 서명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5년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를 촉구하는 내용의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선언' 및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매년 동 선언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안을 채택

- 카자흐스탄은 2017.8.29 IAEA 저농축우라늄(LEU)은행을 동부 지역 울바 야금 공장에 설립하여,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를 국제사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 기술의 확산을 막는 데 기여

- 카자흐스탄의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임(2018.1월) 계기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 신뢰구축 조치' 안보리 공개 브리핑을 주재, 북한에 대해 자국의 자발적 핵포기 성공 사례를 따를 것을 촉구

  - 또한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 및 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건으로 'P5에 의한 대북 안전보장' 방안을 제안





PART 5

경 제

1. 개 요
2.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3. 주요 경제정책 방향
4. 대외 통상 및 투자유치 현황
5.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현황

1 개요

- 카자흐스탄은 원유, 천연가스 및 광물 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수출, 해외직접투자(FDI) 및 재정수입 등이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자본재 및 소비재 등은 러시아·중국·EU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 카자흐스탄 경제는 에너지·자원 부문이 GDP의 20%, 재정수입의 50%, 수출의 75%, 외국인 직접투자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

- 원유·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광물 자원(석탄·우라늄·크롬·아연 등)이 다량·다종 매장되어 있어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하며, 자원 수출을 통한 자생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을 통한 교역 확대 및 투자 유치, 자원 개발 중심의 경제·산업 구조 탈피를 위해 제조업 육성 및 산업다각화를 적극 추진

-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 중앙아시아 교통물류 허브로 도약하고자 교통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프라 정비를 위해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ADB)·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금융기구와도 적극 협력

- 정치적 안정 속에 2000년대 들어 국제 유가의 상승, 시장주의적 개방정책 지속 등에 힘입어 2000~2007년간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고도경제성장 달성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 경색 및 이로 인한 건설 부문 등 전반적 경제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2008년 3.2%, 2009년 1.2%로 급격히 하락

- 2010년 이후 고유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회복하고 5%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부터 유가 하락 및 러시아 경기침체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했지만, 2017년부터 유가 상승 등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2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지표

구분(단위) \ 연도		2014[a]	2015[a]	2016[a]	2017[a]	2018[e]	2019[f]
인구(만 명)		1,750	1,770	1,800	1,820	1,840	1,860
GDP	총액(조 텡게)	39.1	39.8	45.7	51.7	58.8	64.2
	총액(억 달러)	2,185	1,793	1,337	1,587	1,705	1,697
	성장률(%)	4.3	1.0	0.9	3.9	3.8	3.4
	1인당 GDP	12,806	10,510	7,511	8,484	9,224	10,173
인플레이션(%)		7.8	12.7	14.7	7.4	6.0	6.3
달러당 평균환율		182.35	221.7	342.2	326.0	344.7	383.3
대출 기준금리(%)		10.9	13.2	15.3	14.2	12.8	14.0
무역 (백만 달러)	교역량	120,755	76,523	62,113	78,102	93,489	101,029
	수 출	79,460	45,955	36,736	48,503	60,956	64,036
	수 입	41,295	30,567	25,376	29,599	32,533	36,993
	무역수지	38,165	15,388	11,360	18,904	28,423	27,043
총 외채(백만 달러)		157,695	153,395	163,715	167,485	166,352	171,969
회계 지표 (%/GDP)	세 입	18.7	19.2	20.4	22.4	19.5	19.5
	세 출	19.9	20.7	20.6	24.1	20.0	19.9
	수 지	-1.2	-1.5	-0.3	-1.8	-0.5	-0.4
	공공부채	14.8	23.4	25.7	27.0	24.4	23.0
실업률(%)		5.0	5.0	5.0	4.9	4.9	5.0

구분(단위) \ 연도		2014[a]	2015[a]	2016[a]	2017[a]	2018[e]	2019[f]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국가펀드 포함)		29,209 (102,396)	27,871 (91,263)	29,710 (90,928)	30,997 (89,331)	30,909 (88,628)	-
한-카자흐스탄 교역 (백만 달러)	총 교역액*	1,467	759	649	1,531	2,160	-
	수 출*	906 (-15.6)	454 (-49.9)	364 (-19.9)	533 (46.3)	798 (49.8)	-
	수 입*	560 (125.1)	305 (-45.6)	285 (-6.5)	998 (249.9)	1,362 (36.4)	-
	무역수지	346	149	79	-465	-564	-

출처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통계위, EIU 등 (a : 실제치, e : 추정치, f : 예측치)

가. 경제성장

- 2014년 이후 ▲저유가 ▲텡게화 평가절하 ▲對러 제재 등에 따른 러시아와의 동반침체 등으로 성장률 하락
  - 특히 카자흐스탄 통화의 2차례 대규모 평가절하에 따른 물가급등·경제위축으로 2014년 이후 GDP·교역·경제성장률 등이 대폭 하락

- 2017년 이후 유가 회복 및 석유 생산 증가(카샤간 유전 생산 개시 등), 환율 안정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무역 등이 회복 중이며, 2018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3.8%로 추산 (카자흐스탄 정부는 4.1%로 추정)

- 2019년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3%대 경제성장률 전망(카자흐스탄 정부는 3.8% 전망)
  - 긍정적 요인은 ▲국제유가 안정화 전망 ▲인프라 건설 및 투자 프로그램 지속 ▲정부의 재정건전화 추진 및 민영화 노력 등
    ※ IMF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한 국제유가는 60달러 수준
  - 부정적 요인은 ▲對러 경제제재, 러시아 소비 감소 등에 따른 러시아 경제 둔화 지속 가능성 ▲텡게화 환율 불안정 소지 ▲무역분쟁 격화 등 글로벌 리스크 등

주요 기관별 카자흐스탄 2019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기 관	WB	ADB	IMF	EIU
성장률 전망(%)	3.5	3.9	3.1	3.4

나. 환 율

- 카자흐스탄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외환보유고 부족 및 소비재 수입 급증 등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2013년과 2014년 2차례 텡게화의 20% 평가절하를 단행

- 그럼에도 경상수지가 계속 악화되자, 2015.8.20 경제불황 타개,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 및 디폴트 방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존 관리변동환율제를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전격 도입

  - 자유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텡게화 가치가 급락하여 환율이 달러당 180텡게에서 2016.1.22 384텡게까지 상승

    ※ 카자흐스탄 최대 교역국 러시아의 자유변동환율제 도입(2014년 말) → 루블화 가치 폭락 → 카자흐스탄 제품 가격경쟁력 약화 → 경상수지 악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 2018년 국제유가의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4월, 8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 등으로 텡게화 평가절하 지속. 한편 EIU는 2019년 평균 383.3텡게 전망

  ※ 2018년 달러당 평균환율은 344.7텡게였으나, 연초 332텡게에서 연말에 15% 인상된 384텡게로 마감하는 등 2018년 하반기 이후 불안정한 움직임

카자흐스탄 평균 환율 추이 (텡게/달러,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e
환율	149.1	152.1	179.2	221.7	342.2	326.0	344.7	383.3

* e : 추정치

다. 인플레이션

- 2018년도 중앙은행의 목표대(5~7%)에 진입한 6.0%를 기록

- 중앙은행은 2019년 인플레이션 목표대를 4~6%로 설정하였지만, 유가 및 환율 등의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 목표 수준을 넘을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

라. 기준금리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2018.9.4 9.0%까지 인하했던 기준금리를, 최근 환율 불안을 고려한 인플레이션 관리 강화를 위해 2018.10.16 9.25%로 인상

  ※ 최근 기준금리 : (2016.3월) 17% → (2017.1월) 12% → (2018.6월) 9%

마. 노동시장

- 2018년 말 기준, 실업률은 4.9%를 기록

- 2018년 4분기 기준,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176,050텡게(466달러)이며, ▲광업 390,400텡게(1,034달러) ▲금융 및 보험 364,700텡게(966달러) ▲IT 및 엔지니어링 332,500텡게(880달러) ▲통신 261,700텡게(693달러) ▲건설업 227,500텡게(602달러) 순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교육 107,900텡게(285달러)임.

  - 최저임금은 2018년 월 2.8만 텡게(약 77달러)에서 2019년 4.2만 텡게(약 113달러)로 1.5배 인상(2017년 및 2018년 인상률은 7.0% 및 15.6%)

바. 외환보유고

- 2018년 말 기준,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는 309억 달러이며, 국부펀드의 577억 달러를 포함할 경우 총 886억 달러에 달함.

3 주요 경제정책 방향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2014.1.17 연두교서를 통해 2050년까지 세계 선진국 30위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전략 '카자흐스탄의 길 2050 - 공동의 목표, 공동의 이익, 공동의 미래'를 발표
  - 7대 우선과제로 ▲혁신 산업화 트랜드 강화 ▲농업 혁신 ▲지식경제 기반 조성 ▲효율적인 도시, 교통, 에너지 인프라 개발 ▲중소기업 발전 ▲국민 잠재력 개발을 위한 교육 강화 및 보건 지원 ▲국가기관의 업무 개선을 제시

- 2010년 비자원 분야 제조업(특히 중견·중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을 채택한 바 있으며, 최근 2025년까지 연장
  -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출 실시 및 대출이자 감면 ▲보증 및 기업가 훈련 프로그램 등 제공 ▲기업 환리스크 축소 등

- 2013.6월 국가 장기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Concept of Green Economy'를 채택하였으며, ▲수자원, 토지, 생물자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 ▲환경보호 및 개선 ▲인프라 현대화 및 구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2050년까지 단계적인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목표
  -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 3%, 2030년 10%, 2050년 50%(2050년 목표치는 원전 등 대체에너지 포함)까지 확대할 계획
    ※ 2017년 아스타나 국제엑스포 주제는 'Future Energy'였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후에도 관련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전문기관 (IGTIC 등)을 설립하는 등 녹색경제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 지속

- 2014년 시작된 저유가,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인프라 건설 추진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정책, '누를리 졸(Nurly Zhol, 빛의 길)' 시행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해 왔으며, 프로그램 추진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할 계획
  - 정부 및 민간 자금, 해외투자 유치,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도입 등을 통해 2015~2019년간 약 400억 달러를 투자하여 ▲교통물류 ▲에너지 ▲산업 인프라 ▲주택공공서비스 등 7대 분야 인프라 건설
    ※ 특히 교통 인프라 정비가 핵심 사업이며, 도로 부문은 2015년 이후 2.4만km를 신설·재정비하였으며, 2020년까지 4.6만km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

• 2015년부터 '제2차 산업 혁신개발 5개년 계획(2015~2019)'을 통해 제조업, 농업, 교통 물류 등 비자원 분야 육성 및 산업다각화를 추진

• 2016년 발표된 '누를리 제르(Nurly Zher)' 프로그램은 '누를리 졸(Nurly Zhol)'과 연계된 주택 인프라 프로그램으로, 2017~2021년간 모기지 이용자 및 민간 건설업체에 대한 저이율 보조금 제공, 임대주택 건설 등을 지원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2025년까지 연장될 계획)

※ 7-20-25 모기지 프로그램 : 2018.7월부터 시행, 선납금 20% 납입 조건으로 1,500만 텡게(누르술탄(구 아스타나)·알마티 등 주요 도시는 2,500만 텡게) 이하의 분양 아파트 매수 시, 연 7% 이율로 25년간 대출

• '카자흐스탄 민영화 계획 (2016~2020)'을 통해 65대 국영 대기업 등 총 904개 국영기업 및 자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각종 인프라 개발 사업에 PPP 방식을 통한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도모

- 국가 경제에서 공공부문 비중을 현 50%에서 2020년 15%로 축소

• 산업다변화 차원의 자본시장 육성 및 중앙아시아 금융허브 도약을 목표로 2018.7월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출범

- AIFC는 중앙아시아 최초로 시도되는 국제금융센터로 영국법에 기초하여 운영되며. AIFC 산하에 거래소(AIX : Astana International Exchange), 법원 및 국재중재센터(투자자 보호를 위해 카자흐스탄 사법 체계와 별도로 운영) 등을 둠.

• 2018년부터 경제·산업 전 분야에 걸친 디지털 기술 확산을 목표로 '디지털 카자흐스탄 (Digital Kazakhstan) (2018-2022)' 국가 프로그램 추진

-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경제(산업) 디지털화 ▲디지털 정부 ▲디지털 실크로드(통신 네트워크 및 ICT 인프라 확장) ▲인력개발 ▲혁신생태계 구축 등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주제로 2018년 연두교서를 발표했으며, ▲기업 및 정부의 디지털화 ▲스마트 시티 ▲산업의 스마트화 및 지능화 등 강조
- 대통령 연설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트랜드 및 관련 과제 추진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진 의지가 지방정부 및 민간 차원까지 전달되고 있는바, 디지털화, 5G 도입, 스마트 시티 추진 등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많은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18.10.5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복지 증진 :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제하 대국민 특별 국정연설을 실시, 아래 분야 및 과제를 강조

- 국민소득 증대 : ▲최저임금 인상 ▲수출주도 정책 추진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 부담 완화, 독점규제 강화, 미래 혁신기술 진흥, 금융 분야 역할 강화, 농업 진흥 등
- 삶의 질 향상 : ▲교육·과학·보건·생활안전 분야 정부 지출 확대 및 제도 개혁 ▲식의약품·공산품 등 생활안전 강화 및 소비자 보호
-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 : ▲주택 공급 프로그램 지속 ▲국토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도시 및 지역개발 중요성 주목, 인프라 개발에 대한 체계적 접근)
- 기타 : 최근 주요 정책 중 '누를리 졸' 및 '누를리 제르' 프로그램을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프로그램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

4 대외 통상 및 투자유치 현황

가. 대외 교역

- 카자흐스탄은 인근 국가와 달리 독립 초기부터 적극적 대외 개방을 통한 교역 확대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

  ※ 2018.12월 경제외교 강화를 위해 수출 진흥 조정 및 투자유치 집행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투자위원회 및 투자유치청도 외교부 이관)

-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출범을 주도하는 등 국제·역내 무역자유화에도 적극적

  ※ EAEU FTA 현황 : ▲베트남 2015.5월 FTA 체결 및 2016.10월 발효 ▲이란 2015년 협상 시작, 2018.5월 한시(3년간) FTA 체결 ▲중국 2015년 협상 시작, 2018.5월 무역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인도·싱가포르 등과 협상 진행 중

  ※ 우리나라도 한-EAEU FTA 체결을 추진 중으로 2016년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협상 개시를 협의 중

- 교역 : 2013년 1,33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년(2014~2016)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증가세

  - 2018년은 9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

카자흐스탄 교역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e
교역액	1,212	1,328	1,335	1,208	765	621	781	934
수출액	843	864	847	795	460	367	485	609
수입액	369	464	488	413	306	254	296	325

* e : 추정치

• 수출 : 2012년 864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다 2017년부터 증가세

- 2018년은 60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
- 주요 수출국은 이탈리아, 중국, 네덜란드 등
- 주요 수출품은 원유 및 광물성 연료(63%), 철광석 및 강철 등

주요 수출 국가 및 점유율

(단위 : %)

NO	2016		2017		2018e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이탈리아	20.4%	이탈리아	17.9%	이탈리아	19.3%
2	중국	11.5%	중국	12.0%	중국	10.3%
3	네덜란드	8.9%	네덜란드	9.8%	네덜란드	10.2%
4	러시아	9.4%	러시아	9.6%	러시아	8.5%
5	스위스	6.6%	스위스	6.4%	프랑스	6.3%
6	프랑스	4.9%	프랑스	5.9%	**한국**	**4.9%**
7	스페인	2.7%	스페인	3.0%	스위스	4.7%
	한국(29위)	**0.6%**	**한국(11위)**	**2.3%**		

* e : 추정치

• 수입 : 2013년 488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다 2017년부터 증가세(2018년은 32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

-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 및 중국(50% 이상),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 주요 수입품은 산업 기자재 및 원료, 일반 소비재 등 전 분야에 걸침.

주요 수입 국가 및 점유율

(단위 : %)

NO	2016		2017		2018e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러시아	36.6%	러시아	39.6%	러시아	38.1%
2	중국	14.5%	중국	15.9%	중국	16.5%
3	독일	5.7%	독일	5.0%	독일	5.1%
4	미국	5.0%	미국	4.2%	이탈리아	4.6%
5	이탈리아	3.3%	이탈리아	3.2%	미국	4.0%
6	프랑스	2.6%	우즈벡	2.5%	**한국**	**2.8%**
7	터키	2.4%	터키	2.5%	우즈벡	2.6%
	한국	**1.8%**	**한국**	**1.9%**		

* e : 추정치

주요 수입 품목별 점유율(2017)

(단위 : %)

품 목	총수입 중 비중	주요 수입국 및 비중
기계류	16%	중(23%), 러(22%), 독(9.2%), 미(8.6%)/한(2.5%)
전기·전자장비	10%	중(32%), 러(23%), 베(7.2%), 독(4.9%)/한(3.4%)
연료·석유	6.0%	러(80%), 우(6.4%)
자동차·부품	6.0%	러(39%), 일(11%), 중(9.9%), 독(7.3%)/한2.5%)
철·강철제품	5.8%	러(35%), 중(23%), 이(7.9%), 독(5.6%)/한(5.3%)
플라스틱	3.8%	러(47%), 중(20%), 독(5.2%)/한(3.7%)
의약품	3.7%	독(17%), 러(13%), 프(12%), 미(4.3%), 이(3.9%)

나. 투자유치

• 카자흐스탄은 독립 초기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중요한 국가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경제특구 건설, 면세 등 특혜 부여,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꾸준하게 추진 중

※ 우선 분야 프로젝트(priority investment project) 주요한 기준은 정부 지정 지역(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면제(최대 10년) ▲토지세 면제(최대 10년) ▲재산세 면제(최대 8년) ▲건설 및 장비 취득 비용은 최대 30% 환급 ▲노동허가 발급 상 예외 인정 등 혜택 부여

• 특히 2015년 WTO 가입을 전후해 제도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 2016년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창구' 서비스 개시, 각종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옴부즈맨' 제도 도입
- 2017년 해외투자 유치 담당 국영기업인 'Kazakh Inves' 설립
- 2018년 반부패청의 '기업-투자 보호' 시행

※ 투자자-공공행정 및 반부패청 간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국가기관을 상대. 프로젝트 관련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 등에 국가가 제공하는 반부패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을 통보하고, 모니터링 및 지원 제공

• 이러한 노력을 통해 투자 보호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거두고,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양호한 투자 여건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OECD, 미 국무부 등)

- 세계은행의 <두잉 비즈니스 2019(Doing Business 2019)>에서 190개국 중 28위 기록(전년 36위), CIS 국가 중 조지아 및 아제르바이잔에 이어 3번째, 중앙아시아 국가 중 1위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2018>에서 31점으로 전체 180개 국가 중 124위 차지(2017년은 31점/122위였으며, 2017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있음)

•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 및 관료주의, 자의적 법집행(특히 지방 행정기관 차원에서) ▲자국 기업 우선적 제도 ▲정부기관의 계약상 권리 무시 경향 ▲기업 운영에 대한 간섭 지속 등은 여전한 문제점으로 지적(미 국무부,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 카자흐스탄의 2005~2018.3월 해외직접투자(FDI) 총유입액 누계는 2,820억 달러이며,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투자가 많은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미국, 중국 등의 투자가 많은 편

- 투자의 대부분은 석유·가스 개발 위주의 광업 분야 및 금속가공 분야 위주의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음.

카자흐스탄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누계액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2005~2018.3분기 누계액(비중)			2015~2018.3분기 누계액		
1	네덜란드	82,782 (29.3%)	1	네덜란드	24,504 (32.9%)
2	미국	34,892 (12.4%)	2	미국	13,865 (18.6%)
3	스위스	22,855 (8.1%)	3	스위스	9,758 (13.1%)
4	중국	16,795 (6.0%)	4	중국	4,050 (5.4%)
5	프랑스	14,882 (5.3%)	5	러시아	3,793 (5.1%)
6	영국	13,126 (4.7%)	6	프랑스	3,627 (4.9%)
7	러시아	12,918 (4.6%)	7	벨기에	3,402 (4.6%)
12	**한국**	**5,159 (1.8%)**	**9**	**한국**	**1,588 (2.1%)**

* 카자흐스탄측 집계 자료로 우리나라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출처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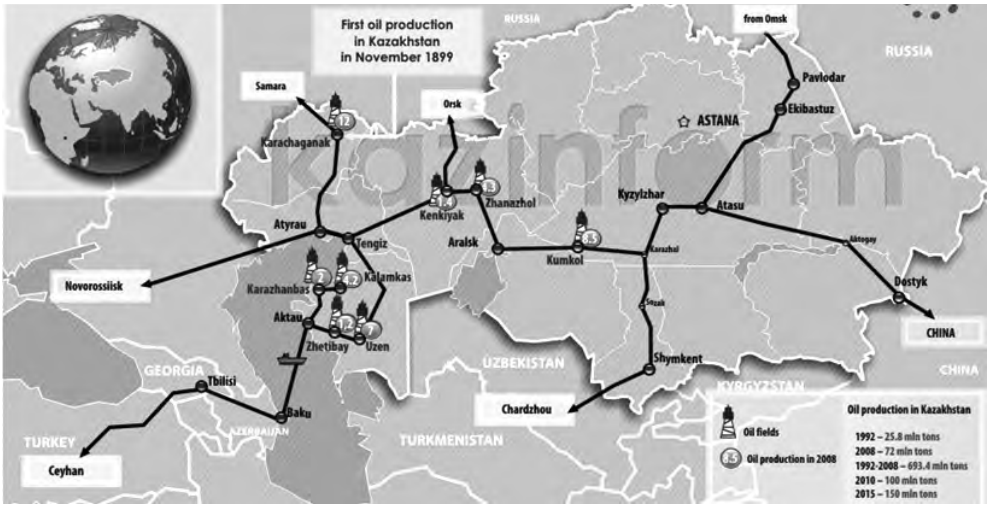
5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현황

가. 석유 및 가스 개발

1) 보유 현황

- 카자흐스탄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2018년 말 기준 300억 배럴(세계 12위)이며, 가스 확인매장량은 1.1조m^3 (세계 25위)
  - 3대 유전인 카샤간(Kashagan, 해상 광구), 텡기즈(Tengiz), 카라차가낙(Karachaganak, 육상 광구)이 전체 매장량의 3/4 차지
    ※ 유전은 주로 북서부 육상과 카스피해 북부에 위치한 프리 카스피안 분지(면적 50만km^2)에 위치하고 있으며, 3대 유전도 모두 분지에 소재

카자흐스탄 유전 및 수송로



출처 : Kazinform

2) 관련 정책

- 석유 및 가스 분야는 독립 초기 진출한 유럽 및 미국계 메이저사의 지배력이 강하나, 카자흐스탄측은 독립 직후 기술과 자금력 부족으로 서방 메이저사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광구를 제공했다는 인식이 있으며, 최근 제도적 통제 강화 및 국영 석유기업(KMG) 지분 확대 추세

  ※ ▲2009년 현지조달(local contents) 강화 ▲2010년 원유수출세 재부과 ▲2010년 지하자원법 개정으로 PSA 폐지, 조광계약(Concession) 강제 ▲2012년 가스공급법에서 수반가스에 대한 정부 선취권 도입 등

  ※ 사후 분쟁을 통한 보상급 징구도 발생(Karachaganak 유전 분쟁이 대표적)

  ※ 국영 석유기업인 KazMunaiGaz(KMG)는 석유·가스의 생산뿐만 아니라, 정유·운송·판매 등 상·하류 부문을 통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원 분야(특히 신규 탐사)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자 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 등에 적극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카자흐스탄 3대 대형 유가스전 현황 (출처 : Wood Mackenzie 등)

- **카샤간 유전(2000년 발견, 2013년 생산 시작)**
  - 지난 40년간 발견된 최대 유전, 세계 최대 해상유전, 카스피해 최대 매장량
  - 2013년 생산을 개시하였으나 가스 누출로 생산 중단, 2016.11월 생산 재개
  - 카자흐스탄 최대 유전(매장량 110억 배럴), 가채매장량 원유 53억 배럴, 가스 508억㎥
  - 2018년 원유 28만 b/d 생산, 향후 최대 94만 b/d 생산 계획

- **텡기즈 유전(1979년 발견, 1993년 생산 시작)**
  - 카자흐스탄 최대 생산 유전, 가채매장량 원유 83억 배럴, 가스 2,238억㎥
  - 2016년부터 26만 b/d 증산을 위한 Future Growth Project 진행 중(대우조선해양이 모듈 공급)
  - 2018년 원유 62만 b/d 생산. 증산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 최대 생산량은 85만 b/d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카라차가낙 유가스전(1979년 발견, 1984년 생산 시작)**
  - 카자흐스탄 최대 가스전으로 카자흐스탄 전체 가스 판매량의 40% 차지
  - 가채매장량 가스 4,074억㎥, 콘덴세이트 32억 배럴
  - 2018년 가스 2,265만㎥/일, 콘덴세이트 24.5만 b/d를 판매, 2024년까지 추가 확장 프로젝트 진행 중

    ※ 특히 수년간 지속되어 온 카자흐스탄 정부-유전 운영사인 KPO 간 과거 수익 분배 관련 국제 분쟁이 2018.10월 타결됨에 따라 확장 프로젝트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

3대 유전 운영사 지분

유 전	사업 컨소시엄	외국계 지분	KMG 지분
Kashagan	NCOC (North Caspian Operating Company	Shell, ExxonMobil, Agip(Eni 자회사), Total 각 16.807%, CNPC(중) 8.33%, Inpex(일) 7.56%	16.877%
Tengiz	TCO (TengizChevrOil)	Chevron (50%), ExxonMobil (25%)	20%
Karachaganak	KPO (Karachaganak Petroleum Operating)	Shell, Eni 각 29.25%, Chevron 18%, Lukoil(러) 13.5%	10%

※ 중국도 1990년대 이후 국영기업 중심으로 진출, CNPC, Sinopec 등이 카자흐스탄 내 다수 유전 보유

3) 생산 현황

카자흐스탄 원유·가스 현황(2017)

구 분	원유	세계 순위(점유율)	가스	세계 순위(점유율)
확인매장량	300억 배럴	12위 (1.8%)	1.1조 ㎥	25위 (0.6%)
생 산 량	183만 b/d	16위 (2.0%)	271억 ㎥	29위 (0.7%)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8

-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 중 러시아에 이은 2위의 원유 생산국으로 생산량은 1990년대 초 59만 b/d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8년 183만 b/d의 원유를 생산하여(세계 16위) 이중 약 135만 b/d을 수출

- 특히 최근 3대 유전 관련 증산 및 생산 개시 프로젝트가 활발하며, 2025년까지 원유 215만 b/d를 생산할 계획

- 가스의 경우 2017년 271억㎥를 생산하였으나(세계 29위) 절반 이상은 유전의 내부 압력 유지를 위해 재주입

  - 특히, 카라차가낙(Karachaganak) 유가스전이 카자흐스탄 전체 가스 생산의 49% 차지

• 가스 수출은 주로 러시아에 한정되었으나, 2017년 중앙아-중국 가스 파이프라인이 완공되어, 연 50억㎥를 수출 중이며, 향후 100억㎥로 수출량을 늘려 나갈 계획

4) 파이프라인

• 카자흐스탄은 내륙국가로 對유럽 원유 수출이 러시아 가스관에 의존해 왔으나(러시아 송유관 운영사인 Transneft의 수출량 할당), ▲BTC(Baku- Tbilisi-Ceyhan) 파이프라인 참여 ▲카자흐스탄-중국 송유관 건설(2006년 Atasu-Alashankou 송유관 개통)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사업 참여 등 지속적인 송유관 다변화 정책으로 자원 수출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특히 2001년 완성된 CPC 파이프라인은 3대 유전 생산량 대부분을 수송하는 등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의 3/4을 담당

※ 카자흐스탄 서부 텡기즈(Tengiz) 유전

- 러시아 흑해항인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 해양 터미널을 연결하는 1,511km 파이프라인으로, 국제 컨소시엄에 의해 건설되어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면서 Transneft의 단독 소유가 아닌 유일한 송유관(CPC 지분은 러시아 31%, 카자흐스탄 20.75%, Chevron 15% 등)

• 한편, 국내 파이프라인 인프라 부족으로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석탄 활용) 중북부 지역 가스 공급을 위하여 카자흐스탄 서남부 크즐오르다에서 카라간다주를 거쳐 누르술탄(구 아스타나)까지 연결되는 가스관 건설 사업(Saryarka 프로젝트) 추진 중

나. 기타 광물자원 개발

• 우라늄 : 확인매장량 세계 2위이며, 2009년부터 생산량 세계 1위(2018년 21,705톤을 생산, 세계 생산량의 39% 점유)

- 최근 우라늄 공급 과잉으로 카자흐스탄은 2017년부터 우라늄 감산에 돌입, 2018~2020년은 20% 감산 예정

※ 우라늄 생산은 국영원자력회사(Kazatomprom)가 지배, 17개 광산 중 5개는 단독 운영, 12개는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캐나다·일본·중국·프랑스 회사와 합작회사(JV)를 설립하여 개발 중

• 석탄·철광석 등 주요 광물자원도 풍부하며, 티타늄·리튬·바나듐 등 각종 희유금속 및 희토류 매장량도 세계적 수준

- 광물자원 매장량(세계 매장량 대비 카자흐스탄 비중) : 철(6%), 구리(7%), 납(19%), 아연(5.65%), 망간(25%), 티타늄(2.5%), 크롬(45.4%), 알루미늄 원광(1.2%), 금(1.85%) 등
- 특히 희유금속류는 아직까지 제대로 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공동탐사를 희망

카자흐스탄 광물자원 매장량

광 종	단 위	매장량	세계 순위
석탄	억 톤	256	8
우라늄	천 톤	842	2
크롬	천 톤	230	1
철광석	백만 톤	340	11
연	백만 톤	2	2
아연	백만 톤	13	6
은	천 톤	53.2	4

출처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8 등

다. 정유 및 석유화학

-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원 추출 부문에 대한 의존도 축소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해 정유·석유화학 등 하류 부문 육성을 위해 노력

- 정유산업 : 아티라우, 파블로다르, 쉼켄트 등 3대 정유공장이 있으며, 2012년부터 약 60억 달러를 투자하여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 2018년 완료
  - 카자흐스탄은 연료유 부족으로 러시아로부터 가솔린을 다량 수입해 왔으나, 정유공장 현대화 이후 국내 시장 공급 초과 발생으로 러시아로부터 수입 중단 및 우즈베키스탄 등 인근 국가로의 수출 추진 중

    ※ 2018.12월 제4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 검토를 최소 향후 5년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

• 석유화학 : 아티라우 가스화학단지 개발 프로젝트가 대표적

- 1단계 사업(25억 달러, 연 50만 톤 폴리프로필렌 생산 공장 건설)은 중국개발은행(CDB)의 20억 달러 차관 지원 하에 중국 CNCEC사가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수행 중
- 폴리에틸렌 생산 플랜트 건설을 포함한 2단계 사업(42억 달러)은 아부다비 국부펀드 계열사가 투자 참여 중

라. 전 력

•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편(80%)으로, 전력 생산은 석탄 생산 지역인 파블로다르주 등 북부에 집중되어 있고, 수력발전은 동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주요 전력 수요처는 알마티 등 남부가 많음.

- 전국적 전력망이 완비되지 않아 전력이 풍부한 북부 지역 잉여 전력은 러시아에 수출하고, 전력이 부족한 남부 지역은 키르기스스탄 등 인근 국가에서 수입하는 구조

• 카자흐스탄 전력시장 구조는 생산-송전-배전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생산은 삼룩에너지(국영전력회사), 송전은 KEGOC(국영 전력망 운영사)가 독점하고 있으며, 배전은 지역별 약 160개 민간회사 간 경쟁 체제

• 발전소 및 전력망이 노후화(발전소의 65%가 구소련 시기에 건설)되어 발전소 및 전력망의 신규 건설·현대화(2030년까지 400억~550억 달러 투자)가 전력 부문의 중요 국가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 전력원 다변화를 위해 원자력·폐열·수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1호 원전 건설을 검토 중으로 2019년 중 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전망
- KEGOC는 2018.8월 채택한 <2018-2028 전략>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전력단지 및 전력망 구축 사업 계획을 발표

마. 재생에너지

- UNDP 등은 카자흐스탄이 지형적 조건(광활한 스텝 지역, 풍부한 일조량 및 강한 바람)상 재생에너지 발전에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 태양광 : 아랄해, 발하쉬 호수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 25억MWh의 발전 잠재력 보유(연간 일조시간 2,200~3,000시간)

  ※ 풍　력 : 국토의 50% 이상이 풍속 4~5m/s로 연 1조 8천억 MWh의 발전 잠재력 보유

  ※ 소수력 : 남부 지역 소규모 강에서 500~700MW의 소수력 발전이 가능, 연 20억~25억MWh의 발전 잠재력 보유

-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체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2020년 3%, 2030년 10%, 2050년 50%)를 추진 중(2017년 비중은 0.9%, 2018년 비중은 1.3%로 알려짐)

  ※ 2050년 목표치는 저탄소 대체에너지(원자력 등)를 포함한 수치이며, 대체에너지를 포함한 2030년 목표치는 30%

- 2018.7월 기준 65개의 재생에너지 시설이 있으며 설비용량은 427MW

  ※ 설비용량은 ▲풍력 : 12개 121MW ▲수력 : 33개 198MW ▲태양광 : 19개 107MW ▲바이오가스 : 1개 0.3MW

-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18.5월부터 재생에너지 경매 제도를 시행 중이며, KOREM (Kazakhstan Electricity and Power Market Operator)에 따르면, 경매를 통해 2018.10월까지 858MW 계약을 체결

  ※ 경매 용량 및 최저입찰가 : ▲태양광 270MW, 18텡게/kWh ▲풍력 500MW, 17.4텡게/kWh ▲수력 82MW, 12.8텡게/kWh 등

  ※ 카자흐 정부는 경매제 도입 이전에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석탄화력발전보다 높은 전력 구매 단가를 적용해 왔음. 그러나 경매제 하에서 전력 구매 단가가 기존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평

- EBRD·WB·ADB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카자흐스탄 재생에너지 사업에 차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독일 등 유럽 기업 진출이 상대적으로 활발

  ※ 특히 EBRD 지원이 활발 : ▲잠빌주 Burnoye에 2015년 50MW급 태양광 단지 건설(8천만 달러 대출) ▲아크몰라주 Yereymentau에 2016년 50MW급 풍력발전 단지 건설(EBRD 6천만 달러 대출) ▲크즐오르다주에 28MW급 태양광 단지 건설(3.5천만 달러 대출) 계획 등

2019년 카자흐스탄 경제 분야 주요 행사

1. 국제 행사

- 제11회 아스타나 경제포럼 (5월 중, 아스타나)
- 유라시아 미디어포럼 (미정, 아스타나)
- 카자흐스탄-러시아 국경협력포럼 (미정, 페트로파블롭스크)

2. 전시회

- Central Asia Home Textile (2월 중, 알마티)
- Shymkent Build (3월 중, 쉼켄트)
- Agri Tek Astana (3월 중, 누르술탄(구 아스타나))
- Home deco Kazakhstan (3월 중, 알마티)
- Deluxe Travel Market kazakhstan (3월 중, 알마티)
- Kazakhstan International Automotive Expo (4월 중 누르술탄(구 아스타나))
- Commercial Transport Expo Central Asia(CTECA) (4월 중, 누르술탄(구 아스타나))
- Astana Flora Expo(AFE) (4월 중, 누르술탄(구 아스타나))
- Kazakhstan International Tourism Fair 2019 (4월 중, 알마티)
-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부동산 전시회 Kaz Realty (4월 중, 알마티)
- International Emigration Expo (4월 중, 알마티)
- Kazakhstan International Energy, Electrical equipment and machine building Exhibition (4월 중, 누르술탄(구 아스타나))
- Eco tech (4월 중, 누르술탄(구 아스타나))
- Kazakhstan International Exhibition ≪Foodstuffs, Drinks, Ingredients, Packaging And Equipment For Food Industry≫ (2019.4월 중)
- 21th Kazakhstan International Exhibition Construction and Interiors, Heating and
- Ventilation, Windows and Doors, Facades, Road Construction, Ceramics and Stone (2019. 5월 중)
- Kazakhstan Inter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 (2019. 5월 중, 알마티)
- Interfood Astana (2019.5월 중, 알마티)
- International "Astana Mining & Metallurgy" Congress & Expo (2019.6월 중)
- Expo-Russia Kazakhstan (2019.6월 중, 알마티)
- Kaz Build 2019 (2019.9월 중)
- Central Asia Beauty Expo (2019.9월 중)
- KIOGE Kazakhstan (2019.9월 중)
- Agro World Kazakhstan (2019년 10월 중)

Republic of Kazakhstan





PART 6

한국과의 관계

1. 한-카자흐스탄 관계 개관
2. 외교 관계 일지
3. 주요 인사 교류
4. 협정 체결 현황
5. 한-카자흐스탄 경제 관계
6. 개발협력 현황
7. 문화 교류

1 한-카자흐스탄 관계 개관

-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992.1.28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와 문화적 친밀성을 바탕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2009.5월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카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6회 방한(1990.11월 구소련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 시절 방한 포함), 우리 정상 5회 방카 등 13회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양자 관계 외에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 중

- 카자흐스탄은 1991년 독립 당시 세계 4위 수준의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한 비핵화의 모범 사례로서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을 적극 지지
  - 2018년 남북고위급회담, 3차례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관련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하여 환영과 지지 입장 표명

- 카자흐스탄은 국가경제발전 모델로서 한국을 중시하며,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2017.12월 발간한 저서 『독립의 시대』에서도 경제발전 사례로 한국을 수차례 언급하고, 제4차 산업혁명 등 관련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 표명

- 한국에게도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력을 가진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이자 신북방정책의 중요 파트너
  - 한-카자흐스탄 교역은 2018년 역대 최대치인 2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최대 투자 대상국(투자 누계 약 40억 달러)

- 카자흐인들은 한국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우호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K-POP·드라마 등 카자흐스탄 내 한류가 확산되고 있고,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으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크게 확대 중
  - 2016년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 답변

- 한류 확산과 더불어 공연·전시·영화·음악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다채로운 문화교류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2018년 3만 명의 한국인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고, 5만 명의 카자흐인이 한국을 방문
- 알마티 한국교육원, 누르술탄(구 아스타나) 한국문화원에서 연간 약 2,500명이 한국어를 수강하고 13개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 등 한국어 학습자 증가

• 1937년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의 후손 10만 7천여 명의 고려인들이 모범적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

2 외교 관계 일지

- 1991.12.30 카자흐스탄 국가 승인
- 1992. 1.28 외교 관계 수립
- 1993. 7.12 김창근 대사 신임장 제정 (초대 : 키르기스스탄 겸임)
- 1996.10.16 이영민 대사 신임장 제정 (2대 : 키르기스스탄 겸임)
- 1999.11. 3 최승호 대사 신임장 제정 (3대 : 키르기스스탄 겸임)
- 2002.10.11 태석원 대사 신임장 제정 (4대 : 키르기스스탄 겸임)
- 2005. 9.29 김일수 대사 신임장 제정 (5대)
- 2009. 3.12 이병화 대사 신임장 제정 (6대)
- 2012. 4.25 백주현 대사 신임장 제정 (7대)
- 2015.10.14 조용천 대사 신임장 제정 (8대)
- 2017. 5.30 김대식 대사 신임장 제정 (9대)

3 주요 인사 교류

방 한		방 카	
1990.11월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1992. 7월	이상옥 외교장관
1995. 5월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	2000. 6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1997.10월	예시모프 제1부총리	2000. 9월	최종영 대법원장
2001. 8월	압디카리모프 상원의장	2002.11월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2002. 4월	투약바이 하원의장	2004. 3월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2002. 9월	예센바예프 산업무역부 장관	**2004. 9월**	**노무현 대통령**
2002.10월	토카예프 국무장관 겸 외교장관	2004.11월	이명박 서울시장
2003.11월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2005. 1월	전윤철 감사원장
2004. 5월	마미 대법원장	2005. 4월	김용덕 관세청장
2004. 7월	셈비노프 국방차관	2005. 8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2004. 7월	아비카예프 상원의장	2005. 9월	김원기 국회의장
2004.10월	프로테트 국방차관	2005.12월	이호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2005. 4월	마르첸코 경제부총리	2006.11월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2005. 4월	슈콜닉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2006. 6월	반기문 외교통상자원부 장관
2005. 5월	켈림베토프 경제·예산기획부 장관	2006. 9월	한명숙 국무총리
2005.12월	샤키로프 외무차관	2006. 9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2006. 4월	아비카예프 상원의장	2007. 3월	김신일 교육부총리
2006. 4월	슈케예프 아스타나 시장	2007. 5월	조중표 외교부 제1차관
2006.12월	무하메드자노프 하원의장	2007. 8월	이상수 노동부 장관
2007. 6월	예르멕바예프 외교차관	2008. 5월	한승수 국무총리
2007. 7월	다이첸코 하원 부의장	2008. 7월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2007.11월	마민 아스타나 시장	2008. 7월	오세훈 서울시장
2007.11월	예르멕바예프 외교차관	2008. 8월	신각수 외교부 제2차관
2008. 2월	슈케예프 부총리	2008. 8월	이윤성 국회부의장
2009. 4월	바탈로프 에너지광물부 차관	2008.10월	유명환 외교장관
2009. 7월	예르멕바예프 외교차관	2009. 4월	김장실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2009.10월	이세케셰프 정보통신처 장관	**2009. 5월**	**이명박 대통령**
2009.12월	예르멕바예프 외교차관	2009. 7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

방 한		방 카	
2010. 3월	이세케셰프 산업신기술부 장관	2009.10월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2010. 4월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2010.10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2010. 4월	니그마툴린 누르오탄당 제1부총재	2010.10월	이만의 환경부 장관
2012. 3월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	2010.12월	김성환 외교장관
2012. 5월	켈림베토프 부총리	2011. 1월	모철민 문화관광체육부 제1차관
2012. 7월	사리바이 외교차관	2011. 5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2013. 5월	카린 누르오탄당 서기	**2011. 8월**	**이명박 대통령**
2013.10월	바이메노프 공공행정처 장관	2012. 6월	주성호 국토해양부 차관
2013.10월	사리바이 외교차관	**2012. 9월**	**이명박 대통령**
2013.11월	암린 관세청장	2013. 6월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의원
2013.12월	아흐메토프 총리	2013. 8월	현병철 인권위원장
2014. 4월	아쉭바예프 외교차관	2013.10월	박기풍 국토교통부 차관
2015.10월	무시노프 외교차관	2014. 1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2016.11월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	**2014. 6월**	**박근혜 대통령**
2017. 4월	마민 대법원장	2015.11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2017. 6월	니그마툴린 하원의장	2016. 6월	양승태 대법원장
		2016. 8월	홍용표 통일부 장관
		2016.11월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2017. 4월	이준식 사회부총리
		2018. 3월	정세균 국회의장
		2018. 4월	강경화 외교장관
		2019.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4 협정 체결 현황

- 1992. 7월 무역협정 (1992.7.3 발효)
- 1995. 5월 과학·기술협정(1997.2.13 발효), 문화협정 (1995.6.15 발효)
- 1996. 3월 투자보장협정 (1996.12.26 발효)
- 1997.10월 이중과세방지협정 (1999.4.9 발효)
- 1999. 8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1999.12.29 발효)
- 2003.11월 형사사법공조조약(2012.9.10 발효), 범죄인인도조약(2012.9.10 발효)
- 2004. 9월 원자력협력협정 (2010.8.23 발효)
- 2006. 9월 한국 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2006.9.22 발효)
- 2007. 6월 외교관·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2008.12.5 발효)
- 2010. 4월 공관 건축을 위한 부지에 관한 협정 (2011.8.1 발효)
- 2011. 8월 발하쉬 화력발전소사업에 관한 협정 (2013.5.27 발효)
- 2012.12월 발하쉬 화력발전소사업에 관한 협정 수정의정서 (2014.4.9 발효)
- 2013.12월 세관업무 상호지원협정 (2014.9.25 발효)
- 2014. 6월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2014.11.29 발효)
- 2014. 9월 한시적 근로협정 (2016.4.8 발효)

5 한-카자흐스탄 경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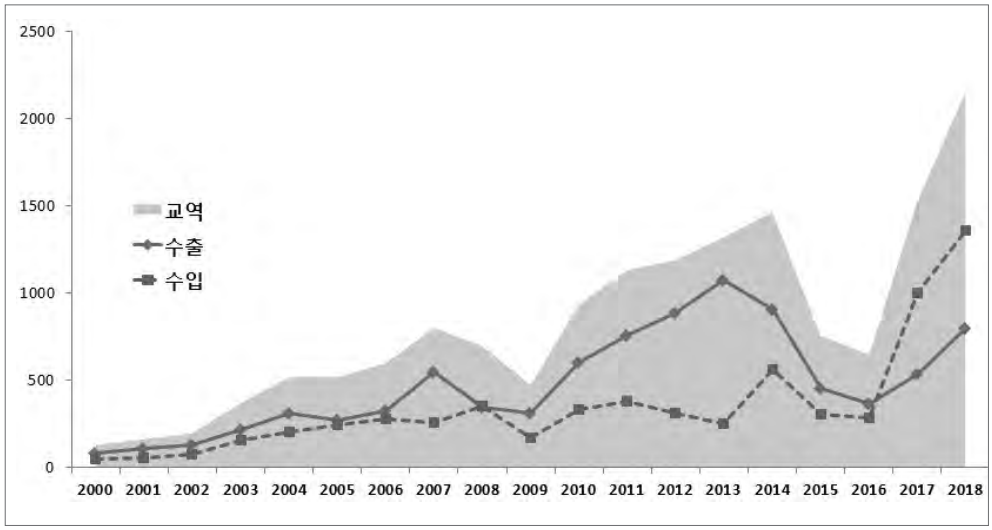
가. 교역 현황

- 2000년대 양국 간 교역량이 급증하다 2014년 종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카자흐스탄 경제 침체로 교역량 급감

- 카자흐스탄 경제 회복세에 따라 2017년부터 빠르게 교역량, 수출 및 수입 모두 회복세. 2018년은 21.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교역량 기록
  -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카자흐스탄산 원유 수입 급증으로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적자)

한-카자흐스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최근 한-카자흐스탄 교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교역량	11.9	13.2	14.7	7.6	6.5	15.3	21.6
수출	8.9	10.7	9.1	4.5	3.6	5.32	8.0
수입	3.1	2.5	5.6	3.1	2.9	10.0	13.6
무역수지	5.8	8.3	3.5	1.5	0.8	-4.7	-5.6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류, 자동차, 철강제품, 전기기기 등
  - 2014년 전후로 ▲의료기기·화장품(의료한류, K뷰티) 수출은 상승세 ▲전화기 ▲액정 디바이스 ▲냉장고(제조공장 국외 이전 등 영향) ▲플라스틱 ▲건설장비 등은 하락세

對카자흐 주요 수출 품목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코드	품목명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84	보일러, 기계류 및 부분품	49.7	87.0	75.1	326.8	275.5
87	차량 및 부분품·부속품	36.5	58.9	61.4	113.1	92.1
73	철강 제품	52.4	84.9	62.0	80.8	-4.9
85	전기기기 및 부분품	45.2	118.7	162.5	74.8	-37.0
39	플라스틱 및 제품	26.3	34.9	32.6	32.1	-8.1
90	정밀기기, 의료기기 및 부분·부속품	19.7	29.1	47.6	30.7	5.5
33	화장품, 화장용품	9.4	11.9	26.4	22.6	89.1
74	동 제품	0.5	1.3	137.0	17.8	1,315.7
94	가구·침구, 조명기구, 조립식 건물	16.3	7.8	-51.8	13.0	65.6
27	광물유 및 증류물, 역청, 광물성 왁스	8.7	10.2	16.9	12.5	22.5

- 우리나라의 對카자흐스탄 주요 수입품은 원유(2018년 수입의 80% 차지), 우라늄 등

나. 투자 현황

- 2018.9월 기준,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투자 금액(신고·누계 기준)은 약 39억 달러

- (주요 투자프로젝트) ▲LG전자 현지생산 공장, 롯데제과의 라핫사 인수 및 생산 공장 설립 ▲신한은행 카자흐스탄 법인 설립 ▲우림건설 및 동일토건 주택건설 ▲한국석유공사의 유전 개발 ▲SK건설 알마티 민자도로 건설 등

주요 진출 기업 현황

구 분	기업명
상 사	삼성물산(법인), LG상사(지사), 현대종합상사(지사), 한화(지사), 포스코 대우(지사), 삼성전자(법인) 등
제 조	LG전자(법인) 등
금 융	신한은행(법인), 신한파이낸스(법인), KB국민은행(법인), BNK캐피탈(법인) 등
건설/플랜트	동일토건(법인), 우림건설(법인), 대우조선해양(지사), SK건설(지사) 등
유 통	롯데제과(법인) 등
운 송	아시아나(지사) 등
의 료	오스템(지사), MPK코리아(병원 운영) 등

다. 분야별 최근 현황

1) 건설 및 플랜트

- (해외건설) 1993년 삼성물산의 제스카즈간 종합병원 건설공사 수주 후 2018년까지 84개 업체가 231건, 114억 달러 수주
  - 주요 진출 분야 : 플랜트(48억 달러), 건축(46억 달러), 토목(14억 달러), 용역(5억 달러)
  - 동일하이빌(동일토건 현지법인)의 주택단지 건설, 두산중공업의 카라바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2014년 수주, 3.1억 달러) 등 진행 중

    ※ 2000년대 중반 누르술탄(구 아스타나)에 한국식 아파트 단지 건설을 통해 진출한 동일하이빌은 카자흐스탄 내에 고급 주택 브랜드로서의 입지가 확실하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의 남부 지역 개발 전략에 따른 쉼켄트 신도시 내 주택단지 건설 프로젝트 추진 중

- (인프라) 우리 기업이 서유럽-중국 연결도로 시공·감리 등 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2018년 SK건설·터키 건설사 컨소시엄이 수주한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사업(총 투자 규모 7.4억 달러)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교통인프라 분야 PPP사업 진출 사례로 평가

-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텡기즈 유전 증산 프로젝트 중 설비 공급 사업(27억 달러 규모)을 수주하고, 2018년부터 국내 생산 모듈을 공급 중

- 최근 우리 기업들은 주로 발전, 금속가공, 정제유 등 분야 플랜트 및 인프라 건설 등 분야 프로젝트 수주 활동

2) 자원 개발

- 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인 악타우, 아티라우, 악토베 지역에 7개 광구를 소유하고 연 6.7백만 배럴(일 18.8천 배럴)의 원유를 생산 중

  ※ 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내 유전개발사(Altius, KNOC Caspian, ADA) 운영 중

3) 자동차

- 카자흐스탄 내 한국 자동차는 품질이 우수하고 유럽 및 일본 차보다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어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현지 조립생산 업체 Azia Avto(동카자흐스탄주), Saryarka Avto Prom(코스타나이)이 각각 기아차와 현대차를 조립생산 중

  ※ 2018년 승용차 판매 점유율은 현대차 4위→3위(15.1%), 기아차 7위→4위(4.9%)로 각각 상승(1위 브랜드였던 Toyota가 2위로 하락)

4) 휴대전화 및 가전

- 한국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삼성·LG TV 등) 선호도가 높아 점유율 1위

5) 농업

- 노루기반이 2014년부터 알마티주 자르켄트 지역에 4헥타르의 첨단온실을 운영하는 등 온실 재배 및 스마트팜 위주 진출 모색 증가

- 쉼켄트시 Kazkioti사의 대동공업 트랙터 조립생산, 대원 GSI의 크즐오르다주 미곡 플랜트 수출 등 농업 기자재 수출도 증가세

6) 보건의료

- 카자흐스탄은 주요국을 제외하고 한국 의료관광 수요 1위로, 의료한류가 강하며 제반 의료 협력도 활발

  ※ 카자흐스탄 의료 관광객 : [방문자 수] 중·미·일·러 등에 이어 2016년 5위(1.5만 명), 2017년 6위(1.3만 명)
  [지출액] 중·러·미에 이어 2016년 및 2017년 4위

-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한국 대형병원과 카자흐스탄 의료기관 간 협력 MOU 체결, 의료 컨설팅, 시범수술, 초청연수 등 사업 활발

- 특히 카자흐스탄 내 한국형 검진센터 개설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최근 한국 병원 및 투자 기업의 직접 진출도 활발

  ※ 2018년 중 알마티 지역에 한국 의사가 상주하는 ▲청연한방병원 ▲MPK클리닉 ▲KMCA 갑상선암 전문 클리닉 등 개원

6 개발협력 현황

- 카자흐스탄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 전문가 파견 등 지원 사업을 활발히 시행

  ※ 우리나라는 1992~2009년까지 ▲3,100만 달러 무상원조 ▲1996년 통신망 현대화사업 총 2천만 달러 EDCF 차관 유상원조 제공 등 ▲총 5,100만 달러 지원

- 2009.11월 우리나라의 OECD/DAC 가입 이후 카자흐스탄이 수원국 리스트상 최상위 그룹인 UMIC(고·중소득국) 소속 국가임에 따라 지원 사업이 축소되었으며, KOICA 사무소는 2011.2월 철수

-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알마티 인근 오지 마을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활용, 전력 및 식수를 공급하는 '그린 빌리지(Green Village)' ODA 사업(2010~2012, 16억 원 규모) 추진

- 카자흐스탄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2016~2020년간 KOICA 글로벌 협력 의사를 UMC(나자르바예프대 병원) 내 공화국 진단센터에 파견 중

- 현재 對카자흐스탄 개발협력은 경제발전공유사업(KSP) 위주로 진행

  - 2018년 말까지 10개의 KSP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2019년 주택건설 행정, PPP 프로젝트 개발 등 3개 프로그램 진행 예정

2018년까지 KSP 프로그램 현황

사업명	수행 기관 (한국측)	현지 협력 기관 (카자흐스탄측)
카자흐스탄의 산업혁신개발계획(2009~2010)	한국개발연구원	산업무역부, 국가개발혁신위원회
카자흐스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발전 전략(2010~2011)	한국개발전략연구소	경제개발통상부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및 신용평가시스템 구축(2011~2012)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신용보증기금	경제개발통상부
카자흐스탄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와 혁신산업개발 계획 수립 준비(2012~2013)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신용보증기금	경제예산기획부
카자흐스탄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2013~2014)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신용보증기금	경제예산기획부
카자흐스탄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은행 자산건전성 향상 및 금융시장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2014~2015)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앙은행
카자흐스탄 수출진흥기구의 역량강화 : 한국의 TPO 시스템 벤치마킹(2014~2015)	고려대학교	투자개발부
카자흐스탄 은행권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기구(FPL)의 조직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부실채권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2015~2016)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앙은행, 부실채권정리기구
카자흐스탄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 주택보증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2016~2017)	한국개발연구원	국가경제부 산하 건설위원회, 보건사회개발부
카자흐스탄 민관협력 파트너십(PPP) 사업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2017~2018)	한국개발연구원	국가경제부, 프로젝트 준비기금, PPP 센터

7 문화 교류

가. 문화협력 환경

- 카자흐스탄은 다민족국가 특성상 외국 문화에 배타적이지 않고, 경로사상을 존중하는 문화적 유사성을 지닌 한국 문화에 친근감을 느낌.

- 한류가 확산되고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제품의 우수성과 한국의 발전상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카자흐스탄에 한국문화원을 개설하여 주변국(유럽·아시아) 한국문화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용이

- 2017년 미래 에너지를 주제로 누르술탄(구 아스타나)에서 엑스포(6.10~9.10)를 개최하였으며, 전체 방문객 400만 명 중 한국관이 56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인기관으로 주목받음.

- 한류 현황
  - <주몽>과 <꽃보다 남자>의 선풍적 인기 이후 10편 이상의 인기드라마를 지상파에서 방영하였으나 현재는 간헐적으로 방영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방송사 Jastar-1과 MOU를 체결하여 K-Drama 홍보
  - 유튜브와 페이스북, 중앙아시아 인기 SNS인 VK 등을 통해 K-POP과 드라마, 영화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으며, 인기 연예인 팬클럽을 중심으로 마니아층 형성
  - 카자흐스탄에는 고려인의 거주로 고려인 음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

    ※ 2018년 누르술탄(구 아스타나) 메리어트호텔에서는 닭강정과 삼계탕, 잡채 등을 메뉴로 채택하였고, 아스타나 조리학교에서는 한식을 정식 교육과정으로 채택

- 한류 확산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 지속 증가
  -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학·취업 등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누르술탄(구 아스타나) 나자르바예프 영재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공식 채택

나. 최근 주요 활동

1) 주요 계기 행사

- 2018년 누르술탄(구 아스타나) 시 천도 20주년 기념 K-POP 공연(7.13)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 운영(2017.1~12월) 및 평창 문화올림픽 순회공연(2017.3월) 등
- 2017년 한-중앙아시아 수교 25주년 기념 국립합창단 기념음악회(11.7~11.9) 및 중앙아시아 3개국 순회공연(3.31)
- 2017년 고려인 정주 80주년 기념 순회 사진전시회(2017.10.25~2018.1.24) 및 갈라콘서트(9.21)
- 2017년 아스타나(현 누르술탄) 엑스포 계기 전통 공연(7.21)
- 2016년 카자흐스탄 최초 대규모 K-POP 콘서트(9.23~9.25)

2) 문화원 운영

- 다채로운 주제의 공연과 전시로 한국 문화 전파 및 양국 문화교류 확대
  - 전통 공연, K-POP 콘서트, 순회 한국영화제, 이철수 판화전, 현대 민화특별전 등

- 매월 '한국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 한국어 및 문화 강좌 개설·운영
  - 수준별(초급·중급·고급) 한국어 강좌
  - K-POP 댄스, 보컬, 전통무용, 한식, 태권도 등 문화 강좌

- 아카데미 강좌 개설·운영
  - K-POP(댄스·보컬), K-Art(한지공예·민화·클레이), K-Beauty(메이크업) 등 한국인 전문강사 파견 운영





PART 7

재외동포·재외국민 현황

1. 고려인
2. 재외국민

1 고려인 : 약 10만 명 (108,177명, 2018년 기준)

가. 고려인 약사

- 한인들은 1850년대부터 계절농 형태로 러시아의 극동 지역으로 이주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극동 지역 개발에 부심하고 있던 러시아 제국 정부는 한인들의 정착을 수용

- 1917.10월 볼셰비키 혁명 이후 스탈린 하에서 본격적인 계획경제가 도입되고 농장의 집단화가 추진되면서 한인들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극동 지역에서 수십 개의 농업·어업 콜호즈를 조직하는 등 경제·사회·문화적 잠재력을 갖춘 한인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
  - 한국어 신문·잡지가 발간되고 라디오방송·한인극장·출판소 등이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사범학교·기술전문학교 등을 설립하여 후진들의 주류사회 진입을 위한 문화적·교육적 기반을 마련

- 소련 정부는 일본과의 긴장이 고조되자 1937년 가을에 한인들의 중앙아시아 이주를 단행
  - 열차 화물칸을 이용한 이주 과정과 중앙아시아 도착 이후 추위와 열악한 거주 환경으로 노약자 상당수가 사망
  - 카자흐인들은 1930년대 초 집단농장 정책의 부작용에 따른 대기근으로 250만 명이 사망한 비극을 겪은 직후였음에도 이주 한인들의 정착을 다방면으로 지원

- 그 후 한인들은 60여 년에 걸쳐 소련 내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북극성 콜호즈 ▲카자흐스탄의 선봉(아방가르드) 콜호즈 등 다수의 한인 콜호즈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소련 내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등 우수한 소수민족으로 두각을 나타냄.
  -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소련에서 유일한 한인종합예술극장인 고려극장, 한글신문인 <레닌기치(현 고려일보)>를 운영하는 등 중앙아시아 내 고려인 사회를 주도

나. 현 황

•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약 10만 8천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937년 이주한 고려인들의 후손인 2~4세대들이 동포사회의 주류를 형성

- 고려인들은 정·관계 고위직, 학계·문화·예술 분야 등에서도 선전

※ 김 게오르기 상원의원, 김 로만 하원의원, 최 유리 前 상원의원, 강 게오르기 카자흐스탄 국립사범대 역사학 교수, 최 알렉세이 대통령 의료센터장, 김 비올레타 대법관(2005.3 은퇴) 등 다수

• 한편, 카자흐스탄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2000년부터 연 10%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고려인들은 기업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2018년 <카자흐스탄 포브스>지가 발표한 카자흐스탄 부자 50인 명단에 김 블라디미르 카자흐스탄 무스 구리광업회사 회장이 1위, 김 비아체슬라프 Kaspi 은행 회장이 21위, 김 에드워드 Technodom(전자제품 유통) 회장이 29위 등 고려인 6명 포함

•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오랜 기간 모국과의 격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말과 문화를 지켜왔으며, 고려극장과 고려일보, 고려인협회 등을 통한 문화·예술·언론 활동을 통해 CIS 지역 내 우리 민족문화의 유지·보존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 다만, 여러 세대에 걸친 모국과의 격리 및 소련 정부의 러시아 동화 정책 등으로 고려인 2~4세대는 한국어 구사가 어렵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 다소 부족
- 그러나 수교 및 우리 대사관 개설 이후 우리 정부로부터의 지원 등에 힘입어 젊은층의 우리말 구사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북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던 공연예술 분야도 점차 한국화되어 가는 추세
-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비자 확대 정책으로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들의 동포비자(F-4, H-2) 취득 증가

다. 주요 재외동포 단체

•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 1990년 설립된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는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고려인 정체성 및 문화 복원, 고려인 권익 보호와 역량강화 등 제반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독립 이후 고려인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약 20개 지방 고려인협회 관할
- 2004.12월 고려인 자체 부담으로 알마티 소재 고려인 회관 개관

• 고려일보

- 1923.3.1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 중이던 독립운동가들이 3·1운동 4주년을 기념하여 한글 신문 <선봉> 창간
- 1937년 이주 후 다른 한인 신문 및 잡지는 모두 폐간당했으나 선봉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발행을 허가받았으며, <레닌기치>(1938.5.15~1990.12.31)로 개칭되어 고려인이 거주하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구역신문에서 공화국 간 공동 신문으로 격상
- 구소련 당시 한때 주 5회 발간에 최대 15,000부 발행
- 1991년부터 <고려일보>로 이름을 바꾸고 민간 신문으로 전환되어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구소련 붕괴로 인해 카자흐스탄으로 구독이 한정되어 4,500부 발간으로 축소
- 2000년부터는 고려인협회가 발행권을 갖게 되어 현재는 직원 7명(주필 : 김 콘스탄틴)이 주 1회 2,500부(러시아어판 11면, 한국어판 5면 발행) 발행 중
- 고려인의 한국어 사용이 감소하면서 한국어판 편집·취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고려일보>는 역사적으로 1923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창간된 <선봉>의 명맥을 잇고 있으며, 이주 이후 카자흐스탄 고려인들과 역사를 함께한 신문
- 한반도 역외에서 발행 중인 동포 신문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문화를 지켜내기 어려운 소련 시기에 고려인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내는 데 크게 기여

•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

- 1932.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설립되었으며 1937년 한인 이주 이후인 1939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주립(州立) 음악연극조선극장'으로 부활
- 약 100명(극장장 : 니 류보비)의 공연단 및 직원을 보유한 고려극장은 CIS 지역 동포사회 내 유일한 국립예술극장으로, 매월 2~3회의 연극·무용·음악 등의 공연을 한국어로 실시
- 2002년 창립 70주년을 계기로 단독 극장 건물을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인수받아 운영
- 2007년 창립 75주년 기념 『고려극장의 역사』 자료집 발간
- 2018년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알마티시 중심에 위치한 '카자흐 국립아카데미 민속악기 오케스트라' 건물을 다시 무상으로 제공받아 현재 운영 중

• 알마티고려문화센터

- 1989년 소련 말기 민족 정체성 회복을 위해 고려문화센터가 설립되었으며, 현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의 전신인 고려문화센터는 산하에 23개 고려인 사회문화단체를 운영하며 한국 및 카자흐스탄의 국경일 등 기념행사에 고려인을 대표하여 연간 20여 차례의 문화 공연을 실시하는 등 고려인의 한민족 정체성 유지에 기여

2 재외국민 : 약 2,000명

• 1992년 수교 직후부터 주로 자영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기 시작한 재외국민은 약 2,000명으로 추산

- 주로 무역업, 자영업, 지상사 근무, 선교, 유학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교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교민은 알마티에서 거주

• 2014년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후, 양국 간 인적 교류 활발

- 2017년 우리 국민 방문객 수 : 30,582명
- 국내 체류 카자흐스탄인 : 31,216명 (불법체류자 11,860명 포함, 2018.9월 말 기준)
- 카자흐스탄 국적자들의 치료 목적 방한 급증(2017년 환자 입국자 수 6위, 2016년 1인당 평균 진료비 3위)

• (주요 교민단체) 알마티 소재 한인회, 중소기업연합회, 지상사협의회, 선교사협의회 / 아스타나(현 누르술탄) 경제인연합회 등





PART 8

북한과의 관계

1. 북한-카자흐스탄 관계
2. 북한-카자흐스탄 교류 현황

1 북한-카자흐스탄 관계

- 북한은 카자흐스탄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인 1992.1월 수교한 데 이어 1992.12월 주카자흐스탄 상주 대사관 개설

- 북한-카자흐스탄 간 별다른 관계 진전이 없자 북한은 1998.2월 주카자흐스탄 상주 대사관을 폐쇄하고 2000.11월에는 알마티 주재 무역대표부도 철수

- 2012.11월 주카자흐스탄 북한대사관 재개설 검토를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이후 2015.9월 대사관 사무실 물색을 위해 북한 실무단이 누르술탄(구 아스타나)을 방문한 바 있으나, 진전사항 별무
  - 카자흐스탄은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월) 이후 2016.2월 북한 대사관 재개설 잠정 불허 결정을 내린 후 현재까지 그러한 입장 유지 중

- 카자흐스탄은 세계 비핵화 선도국으로서 북한의 2016년 4~5차 핵실험(1.7, 9.10), 2017년 6차 핵실험(9.4), 탄도미사일 발사(8.30, 11.29)에 대해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

2 북한-카자흐스탄 교류 현황

- 북한대사관 철수 이전 인사 교류
  -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1993.6월), 외교부 대표단(1995.2월), 노동당 대표단(1995.8월) 등이 카자흐스탄을 방문
  - 카자흐스탄 외무차관(1996.11월), 법무장관(1997.4월) 등이 방북

- 북한대사관 철수 및 1999년 미그-21기 대북 밀수출 사건,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인해 양국 정부·의회·문화 교류가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북한-카자흐스탄 외교부 국장급 정책협의회가 2012.11월 누르술탄(구 아스타나) 및 2015.4월 평양에서 개최

- 2016~2017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따라 카자흐스탄은 양국의 주러시아 대사관을 통해서 필요한 접촉은 하되, 양국 정부 간 직접 접촉은 제한

-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2018.8월 김형준 주카자흐스탄 북한대사(모스크바 상주)의 누르술탄(구 아스타나) 방문 및 외교장관 면담, 2018.9월 유엔 총회 계기 북한-카자흐스탄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는 등 접촉 재개
  - 2018.5월 알마티 개최 한반도 국제학술포럼 및 한민족축제에 조국통일연구원 정기풍 실장 등 북한 대표단과 통일극단(가수) 참석

- 북한-카자흐스탄 교역액은 2017년 57.2만 달러, 2018년 23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對북한 수출은 없고 모두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PART 9

부 록

1. 카자흐스탄 주요 인사
2. 카자흐스탄 정부 조직도
3.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2003.11.13, 서울)
4.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2004.9.20, 아스타나)
5.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2009.5.13, 아스타나)

1 카자흐스탄 주요 인사

가. 토카예프 대통령



성 명	토카예프 카심 조마르트 (TOKAYEV Kassym-Jomart)
출 생	1953. 5. 17
출생지	알마티시
학 력	• 1975 모스크바 국제관계대 졸업 • 1992 러시아 외교부 외교아카데미 졸업 • 1985 역사학 박사 • 2015 정치학 대박사
경 력	• 1979~1983 소련 외교부 3등서기관 • 1983~1984 북경어언대 연수 • 1984~1985 소련 외교부 3등서기관 • 1985~1991 주중국 소련대사관 1, 2등 서기관 • 1992~1994.10월 카자흐스탄 외교부 차관 • 1994.10월~1999.10월 카자흐스탄 외교부 장관 • 1999. 3월~1999.10월 카자흐스탄 부총리 • 1999.10월~2002. 1월 총리 권한대행, 총리 • 2002. 1월~2003. 6월 외교부 장관 겸 국무장관 • 2003. 6월~2007. 1월 외교부 장관 • 2007. 1월~2011. 3월 국회의원, 상원의장 • 2011. 3월~2013.10월 UN 제네바 사무소장 (유엔 사무차장급) • 2013.10월~2019. 3월 상원의장 • 2019. 3.20~현재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사임 후 취임)
가족 관계	이혼, 아들 1명(티무르)
구사 언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성 격	진보적 성향, 원리원칙 중시, 사생활 및 개인 공간 공개 비선호
취미/운동	탁구

나.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성 명	나자르바예프 누르술탄 (NAZARBAYEV Nursultan)
출 생	1940. 7. 6
출생지	알마티주 체몰간시
학 력	• 1967년 카라간다 야금 공과대학 졸업(경제학 대박사, 카자흐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국제공학아카데미, 러시아 사회과학아카데미 학술위원, 알-파라비 국립대 명예교수, 벨라루스 과학아카데미 명예회원, 러시아 로모노소프 국립대 명예교수)
경 력	• 1960~1969 카라간다 야금공장 근무 • 1962 공산당 입당 • 1969~1973 카라간다주 테미르타우 시위원회 서기, 제1서기 • 1973~1977 카라간다 야금 콤비나트 서기 • 1977~1979 카라간다주 지역 정당위원회 제1서기 • 1979~1984 카자흐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 • 1986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 1989. 6월 카자흐스탄 중앙위원회 제1서기 • 1989~1991 소련 인민대표회의 의원 • 1990. 7월 소련공산당 정치국 위원 • 1991~1999 대통령 (1995.8월 신헌법 채택) • 1999. 1.10 대통령 재선 • 2005.12. 4 대통령 3선 • 2011. 4. 3 대통령 4선 • 2015. 4.26 대통령 5선 (2019.3.20 사임) • 2019. 3.20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 누르오탄(집권여당) 총재, 헌법위원회 위원, 민족회의 의장직 유지
가족 관계	부인 (사라 알피소브나 나자르바예바), 자녀 3명 (다리가, 디나라, 알리야)
구사 언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성 격	온화한 이미지, 카리스마 보유, 국가발전 비전 제시와 단호한 결단력 보유, 뛰어난 협상력, 원리원칙 중시, 자기관리 철저
취미/운동	골프, 테니스, 승마, 등산, 배구, 수영, 사냥 등

다. 마민 총리

성 명	마민 아스카르 (MAMIN Askar)	
출 생	1965. 10. 23	
출생지	첼리나그라드	
학 력	• 1987 • 2003	첼리나그라드 토목공학대 졸업 러시아 플레하노프 경제아카데미 졸업 (경제학)
경 력	• 1991~1993 • 1993~1996 • 1996~2000 • 1998~2000 • 2000~2002 • 2000~2001 • 2002~2003 • 2003~2004 • 2005~2006 • 2006~2008 • 2008. 4월~2016. 9월 • 2014. 2월~2016 • 2016. 9월~2019. 2월 • 2019. 2.21 • 2019. 2.25~현재	카자흐스탄 혁신기업연합 부대표 Inter-Isim 합작 프로젝트 총괄감독 아크몰라(구 아스타나) 부시장 아크몰라 FEZ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교통통신부 차관 교통통신부 도로위원회 위원장 LLP 'Incom-Astana' 총이사 산업통상부 제1차관 교통통신부 장관 아스타나(현 누르술탄) 시장 국영철도회사 '카자흐스탄 테미르졸리(KTZ)' 사장 카자흐스탄 기업인협회 교통통신물류위원장 제1부총리 총리 임시권한대행 총리
가족 관계	기혼, 자녀 2명(1남1녀)	
구사 언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라. 아탐쿨로프 외교장관



성 명	아탐쿨로프 베이부트 (ATAMKULOV Beibut)	
출 생	1964. 5. 19	
출생지	알마티주 잠불 지역	
학 력	• 1986	카자흐 폴리테크닉 공과대 졸업 (금속공학)
	• 2000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금융 국립대 졸업 (경제학)
	• 2000	경제학 준박사
경 력	• 1986~1991	쉼켄트 납공장 제련 및 정련엔지니어, 수도건설과 수석엔지니어, 대외경제교류과 부과장 등
	• 1991~1993	Chermet Export 및 Kazmetalleksport 과장
	• 1993~1996	대외경제관계부 'Kazakhstan Sauda' 제1부사장
	• 1996	카라간다 금속공장 제1부사장
	• 1996~2002	Rakhat Metals 사장
	• 2002~2006	Rakhat 국영기업 사장, 이사장
	• 2006	주러시아대사관 참사관
	• 2006~2007	주러시아대사관 공사참사관
	• 2007~2008	주이란대사관 공사참사관
	• 2008~2010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 2010. 5월~2012. 9월	주말레이시아 대사
	• 2010.11월~2012. 7월	(주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대사 겸임)
	• 2012.10월~2014. 8월	산업신기술부 사무차관
	• 2014. 8월~2015. 8월	투자개발부 사무차관
	• 2015. 8월~2016.10월	남카자흐스탄주 주지사
	• 2016.10.7~2018.12.26	방위·항공우주산업부 장관
	• 2018.12.26~현재	외교장관
가족관계	기혼, 자녀 3명(2남1녀)	
한국과의 관계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마. 다리가 나자르바예바 상원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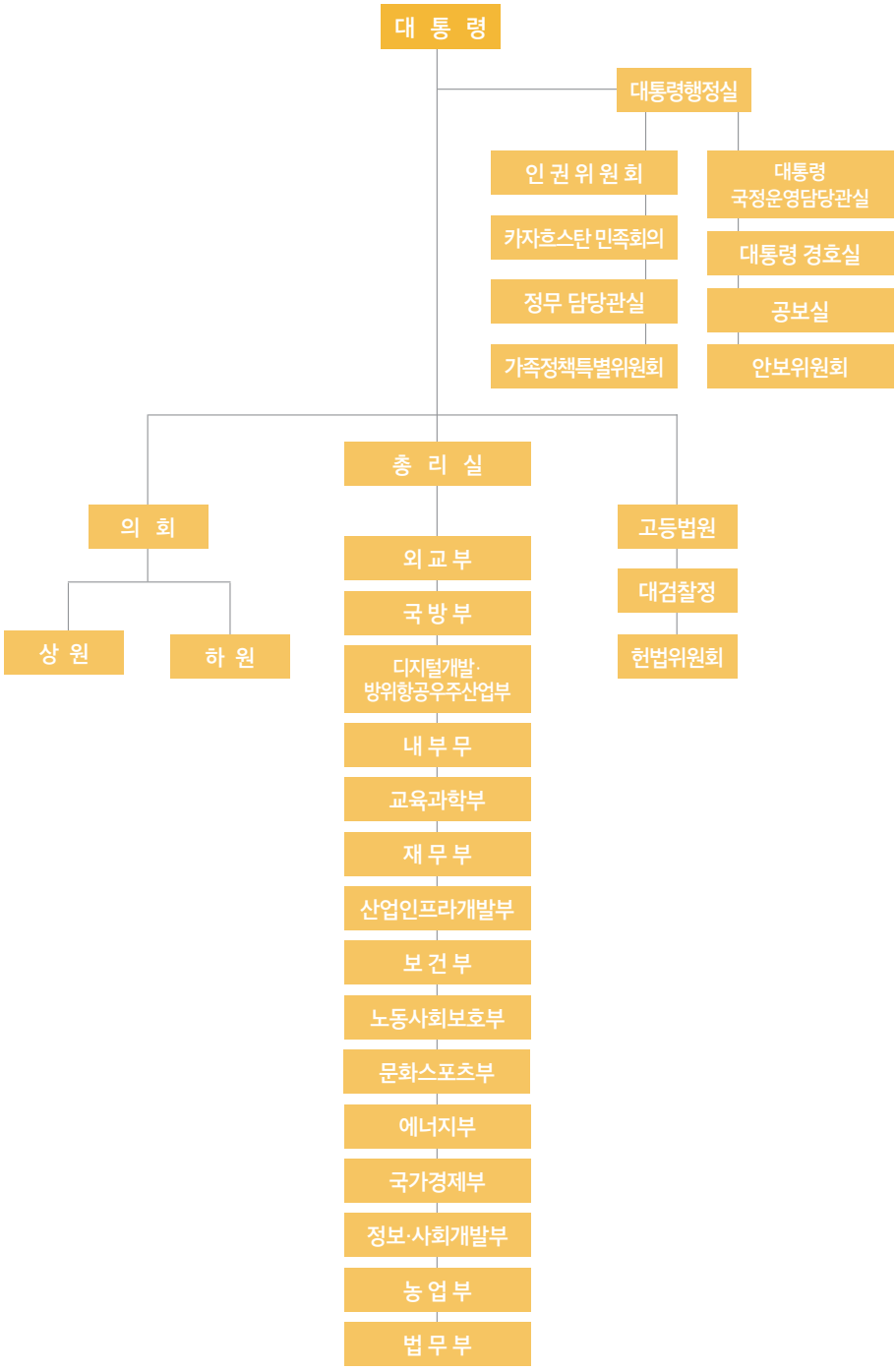
성 명	나자르바예바 다리가 (NAZARBAYEVA Dariga)
출 생	1963. 5. 7
출생지	카라간다주
학 력	• 1985 모스크바 국립대, 카자흐스탄 국립대 졸업 (역사학) • 1991 모스크바 국립대 석사 • 1998 정치학 박사
경 력	• 1992~1994 어린이 자선기금 <Bobek> 부회장 • 1994~1995 카자흐스탄 TV·라디오 공사 부회장 <하바르> 국영TV방송사 이사 겸직 • 1995~1998 <하바르> 대표이사 • 1998. 7월~2001. 3월 <하바르> 사장 • 2001. 3월~2004.11월 <하바르> 이사장 • 2004. 9월~2007. 6월 제3대 하원의원 (Asar당 대표) • 2005. 2월~2007. 6월 Aimag 의원그룹 대표 * 2006년 Asar당과 대통령의 당인 Otan당(현 누르오탄당) 및 친정부 정당들의 합병 주창 • 2007. 7월~2010. 6월 Nurbank 이사장 • 2007~현재 초대대통령재단 이사장 • 2012. 1월~2014. 4월 제5대 하원의원, 사회·문화발전위원장 • 2014. 4월~2015. 9월 하원 부의장, 누르오탄당(집권여당) 원내대표 • 2015. 9월~2016. 9월 부총리 • 2016. 9월~2019. 3월 상원 외교·국방·안보위원장 • 2019. 3.20~현재 상원의장
가족 관계	이혼, 자녀 4명, 손자 3명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장녀)
구사 언어	러시아어, 카자흐어,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기 타	前 남편인 라힛 알리예프는 2007년 주오스트리아 대사 재직 중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독재정치를 비판하고 대권 도전 의사를 표명하였다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눈 밖에 나서 각종 범죄·부패 연루 혐의를 받아 대사 지위를 박탈당하고 다리가와 이혼 후 오스트리아로 망명. 2014년 돈 세탁 혐의로 체포되어 오스트리아 빈 감옥에서 복역 중 2015.2월 자살

바. 니그마툴린 하원의장



성 명	니그마툴린 누를란 (Nigmatulin Nurlan)
출 생	1962. 8. 31
출생지	카라간다주
학 력	• 1984 카라간다 공대 졸업 (기계공학) • 1989 소련 중앙위원회 산하 콤소몰 아카데미 졸업 • 1997 역사학 박사학위 • 2001 정치학 대박사 학위
경 력	• 1984~1985 Karagandacblgaz 엔지니어 • 1985~1990 카라간다 생산조합 및 레닌 청년공산연맹 간부 • 1990~1993 카자흐스탄 청년조직위원회 위원장 • 1993~1995 카자흐스탄-미국 합작기업 Tengri 사장 • 1995~1999 대통령행정실 행정관리국 부국장 • 1999~2002 아스타나(현 누르술탄)시 부시장 • 2002~2004 교통통신부 차관 • 2004. 4~6월 Otan당 사무국장 • 2004~2005 대통령행정실 부실장 겸 행정관리·인사국장 • 2005~200 대통령행정실 부실장 • 2006~2009 카라간다 주지사 • 2009~2012 누르오탄당 제1부총재 • 2012~2014 하원의장 • 2014~2016 대통령 행정실장 • 2016. 6.22~현재 하원의장
가족 관계	기혼, 아들 3명
구사 언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2 카자흐스탄 정부 조직도



3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 (2003.11.13, 서울)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3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은 200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 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1. 양측은 1995년 5월 16일 서명된 "관계와 협력에 관한 일반원칙 선언"을 토대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제 및 지역 기구와 포럼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경제·통상, 에너지·자원 및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12년간 양국 관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여 온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고, 호혜적인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하여 상호 보완적인 경제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실질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양측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한반도 평화 증진과 동북아 지역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였고,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4. 양측은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와 같은 아시아 지역안보 협의체의 발전이 지역안보에 유익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국제 테러리즘, 조직범죄, 마약거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초국가적 범죄와의 투쟁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양측은 양국 국민 간 우호 관계 발전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하여 양국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사회단체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현재 양국 관계를 교육, 문화, 관광, 체육, 지방 간 협력 등 분야에서 체계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해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6. 양측은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학부 간 협력약정 체결에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항공협정, 해외봉사단파견협정, 감사기관 간 협력약정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 간 교섭 중인 조약 및 협정의 조기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7. 양측은 정부 차원의 경제·통상 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협력 분야를 추가로 발굴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활용하여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시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양측은 11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무역·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8. 양측은 양국 간 에너지·자원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카자흐스탄은 한국 유전 개발 컨소시엄의 카스피해 해상광구 개발 참여 계획 등 카자흐스탄 내 원유 및 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의사를 환영하고 이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9. 양측은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이용, 신소재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와 협력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동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0. 양측은 UN, WTO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세계시장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WTO 가입 지지를 표명했다.

11. 양측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인지하고,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의 문화적·민족적 발전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2. 양측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를 표명했다.

Joint Stat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Occasion of the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azakhstan

November 12-14, 2003

At the invitation of His Excellency, Mr. ROH Moo-hyu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is Excellency Mr. Nursultan Nazarbaev,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paid an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on 12-14 November 2003.

In their summit held in Seoul on 13th November, the two Leaders engaged in an in-depth exchange of views on issues of mutual interest.

1. Both side agreed to develop the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 "Declaration of General Principles for Relations and Cooperation" signed on May 16 1995, to work together more closely within the framework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ums, and take their solid cooperative ties to a higher level in a range of fields including economy and trade, energy, mineral resources as well as science and technology, establishing fresh bonds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2. Both sides expressed satisfaction at the great advances in their bilateral relation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reas in the 12 years since diplomatic ties were established in 1992, and agreed to expand and enhance this substantial cooperative interaction by fully utilizing the potential for complementary economic growth with the aim of reinforcing their friendly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3. Both sides agreed to make joint efforts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n region. The Republic of Kazakhstan expressed its support for the Policy for Peace and Prospe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aims to promote peace on the Peninsula and common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Republic of Korea's position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hould be resolved peacefully through dialogue.

4. The two sides shared the view that the development of bodies for consultations on regional security in Asia, including the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was constructive and agreed to work together in the fight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organized crime, drug trafficking and other types of transnational crimes.

5. Both sides agreed to actively support exchanges not only between the governments but also between the peoples and civil groups of the two countries with the aim of promoting amicable ties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peoples of their two countries. Both sides agreed to exert their efforts to take the current bilateral cooperative relations one stage further through vitalizing systematic exchang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educations, culture, tourism, sports and local governments.

6. Both sides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of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the Treaty on Extradition, the Program f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agreed to exert efforts to conclude at an early date the treaties and agreements that are under negotiation between their governments including the Air Service Agreement,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 Program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the Arrangement betwee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Accounts Committee for Control over Implementation of the Republican Budget with the aim of further strengthening legal basis for bilateral cooperative relations.

7. Both sides agreed to identify areas for cooperation in the economic field and to create a favourable environment for cooperation in the economic field by promoting consultative bodies in the area of economy and trade at the governmental level.

They also concurred to deepen their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y utilizing the economic complementarity of the two countries. In this regard, both sides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of the results of the Joint committee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held in Seoul on 10th November 2003.

8. Both side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in the field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epublic of Kazakhstan welcomed the intention of the Korean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hydrocarbon deposit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relevant infrastructure such as the Korean oil and gas consortium's plans for participation in the Caspian oil project and expressed its intentions to support Korean companies' involvement.

9. Both sides shared the view that joint research and cooperation are needed in the field of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next-gene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nd the production of new materials, and agreed to strengthen exchanges and coordination in these fields.

10. Both sides agr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and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in this regard, the Republic of Korea expressed its support for the Republic of Kazakhstan's accession to the WTO in the interest of its incorporation into the global market economy system.

11. Both sides noted that the ethnic Koreans in Kazakhstan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development of Kazakhstan and agreed to promote further cultural and ethnical development of the Korean community in Kazakhstan.

12. Both sides evaluated President Nursultan Nazarbaev's visit to Korea as a great success. President Nursultan Nazarbaev expressed his gratitude for the warm hospitality exte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4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 (2004.9.20, 아스타나)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4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였다. 금번 방문은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의 카자흐스탄 방문이며, 2003년 11월 카자흐스탄 공화국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공식 방한에 대한 답방으로서 양국 관계의 진일보한 발전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방문이었다.

양국 정상은 2004년 9월 20일 아스타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향후 양국 간 상호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1. 양국은 우호와 협력의 정신으로 미래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1995년 5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 상호 관계와 협력의 기본 원칙 선언'에 기초하여 국제 및 지역 기구 내에서 상호 협력 심화와 무역, 에너지, 광물자원,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보다 높은 실질협력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였다.

2. 양국은 2003년 11월 카자흐스탄 공화국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방한이 양국 관계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치·경제·인문-문화를 포함하여 모든 방면에 걸쳐 점진적인 상호 협력의 발전 추세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면서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적 구조를 감안,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양국은 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와 동북아에서의 공동번영을 달성코자 하는 대한민국의 평화번영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하여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4. 양국은 아시아 교류 신뢰구축회의(CICA)가 아시아 지역안보 증진에 유익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02년 6월 알마티 제1차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정상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004년 10월 22일 알마티에서 개최될 CICA 회원국 외무장관회담 개최를 환영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문명과 종교 간 대화가 더욱 발전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였다.

5. 양국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 발전의 지원을 위하여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및 사회단체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국은 가까운 시기에 문화공동위를 개최하는 데 합의하고,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및 양국 지방 간 상호 협력 분야에서의 교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국은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정보통신협력약정, 에너지·광물자원협력약정 서명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항공협정, 해외봉사단파견협정, 감사원간협력약정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양국 간 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7. 양국은 경제, 통상 및 투자 협력의 심화와 발전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활성화하고, 기업인 간 교류 확대와 발전에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국은 2004년 9월 19일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기업인 포럼 결과에 만족을 표명하고, 무역경제협력 공동위의 조기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8. 양국은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의 협력에 상호 관심을 표명하고 공동개발사업, 기술정보교류 등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석유화학단지 건설과 조선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한국 유전 컨소시엄의 카스피해 자원개발을 포함한 한국 기업의 석유 및 광물자원 개발 참여를 환영하고, 한국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9. 양국은 아시아와 유럽 간 경제교류 증진에 기여하게 될 국제운송 분야에서의 협력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10. 양국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산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신소재 개발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11. 양국은 UN, WTO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세계시장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WTO 가입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12 양국은 양국 국민의 상대국 출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영사 관계 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키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선진 27개국을 대상으로 초청장 없이 단수의 외교관, 관용, 상용, 관광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 2004년 9월 1일부터 한국을 포함시킨 결정을 높이 평가하였다.

13. 양국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양국 국민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해 온 공적을 평가하고 향후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의 문화적 발전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4. 양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이 성공적이었으며 양국 간 협력 관계에 있어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Joint Stat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Occasion of the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azakhstan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20 September, 2004

At the invitation of His Excellency, Mr. Nursultan Nazarbayev,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His Excellency, Mr. Roh Moo-hyu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aid a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azakhstan during 19-20 September 2004. This was the first official visit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Kazakhstan, and a historic one, commemorating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1992, as well as a visit in return to the visit of Nursultan Nazarbayev,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o the Republic of Korea in November 2003.

In the course of the summit held in Astana on 20 September, the two Leaders engaged in an in-depth exchange of views on issue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ways to further consolidat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1. Both Sides agreed to further develop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the basis of the "Declaration of General Principles for Relations and Cooperation" signed on 16 May 1995, and to take their substantial cooperative relations to a higher level in the fields of trade, energy, mineral resources as well as science and technology.

2. Both Sides evaluated that President Nazarbayev's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in November 2003 grea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expressed satisfaction on the gradual development of interaction in all fields, including the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humanitarian fields, and intended to enhance bilateral rel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mutually supplementary structures of the two economies.

3. Both Sides agreed to make joint efforts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Asia and the world. The Republic of Kazakhstan reaffirmed its support for the Policy of Peace and Prospe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aims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mmon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Republic of Korea's position on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dialogue.

4. Both Sides held the same view that the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CICA) plays a constructive role in strengthening regional security in Asia. Both Sides positively appreciated the results of the first CICA Summit, held in June 2002 in Almaty, and welcomed the holding of the Foreign Ministers' meeting of the member-states for the said Conference. Both sides supported the process of further facilitating dialogue between civilizations and religions.

5. Both Sides agreed to actively promote cooperation not only between their governments, but also between their people and civil organizations with the aim of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developing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this reason, both Sides agreed to hold the meeting of the Joint Committee on Cultural Cooperation in the near future and to make efforts for the vitalization of exchanges in all fields, including education, culture, tourism, sports, as well as interaction between the regions of the two countries.

6. Both Sides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on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on Peaceful Use of Atomic Energy, the Arrangement on Cooperation in Informatization and Communication and Arrangement on Cooperation i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and recognized the necessity of promptly concluding agreements currently under

negoti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clu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viation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Implementation of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 Program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the Arrangement between the Accounting Committee for Control over Republican Budge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7. Both Sides agreed to foster consultations between the governments in order to intensify and promote trade, economic and investment cooperation, and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enhancing and promoting exchanges of business persons. In this context, the two sides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results of the Business Forum held on September 19, 2004 in Astana, and agreed to hold the meeting of the Joint Committee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ear future.

8. Both Sides expressed mutual interest in cooperation for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and agreed to enhance practical cooperation through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on joint development and exchange of technical information. The Republic of Kazakhstan welcomed the participation of Korean companies in the development of oil fields and mineral resources, including the participation of the Korean Consortium in the development of oil fields in the Caspian Sea, as well as the creation of infrastructure, including construction of petrochemical plants, shipbuilding, and expressed its intention to render necessary assistance to Korea.

9. Both Sides attached special importance to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which positively contributes to greater economic exchanges between Asia and Europe.

10. Both Sides recognized the necessity to carry out joint researches in new-gener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peaceful use of atomic energy, and the elaboration of new cutting- edge technologies including production of new materials, and agr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is field.

11. Both Sides agr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e Republic of Korea reaffirmed its support for Kazakhstan's joining the WTO to fully integrate into the global market system.

12. Both Sides agre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oncluding an Agreement on Consular Affairs for facilitating entry/exit of the citizens of both countries between the two territories. Korea highly appreciated the decision of the Kazakhstani Government of September 1, 2004, to include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category of 27 developed countries, subject to the simplified visa issuance procedure for single diplomatic, official, business, and tourist visas without submitting invitations.

13. Both Sides recognized the contribution of ethnic Koreans in Kazakhstan in strengthening friendship between the Kazakhstani and Korean people and agreed to render support for the further ethnic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 Korean society in Kazakhstan.

14. Both Sides highly evaluated the visit of H.E. Roh Moo-hyu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Kazakhstan, which added impetu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H.E. Roh Moo-hyun expressed his gratitude for the warm hospitality extended by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Kazakhstan.

5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 (2009.5.13, 아스타나)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9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측은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 협력 전망 및 상호 관심사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1995년 5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 상호 관계와 협력의 기본원칙 선언'에 기초하여 다면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1. 양측은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관계를 정치·경제 및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양측은 무역·투자, 환경, 농업, 인프라·건설, 과학기술, 원자력,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및 국제·지역기구를 통한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인프라 건설, 농업, IT, 환경, 문화 등 양국 간 잠재력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간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경제, 통상 및 투자 협력의 심화·발전을 위해 기업인 간 교류 증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 개최된 한-카 비즈니스 포럼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3. 양측은 범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위험을 인식하면서, 환경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재생에너지원과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저탄소 경제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대체에너지원 및 친환경 기술개발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에너지 협력이 양국 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에너지 및 천연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석유가스 부문 공동 프로젝트 시행 차원에서

탄화수소 자원 탐사 및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2008년 5월 체결된 우라늄 장기도입 계약을 바탕으로 우라늄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양국 기업들 간 협력을 환영하고,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원자력에너지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2004년 9월 20일 서명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카자흐스탄의 원자력 산업 육성에 적극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중소형 원자로(SMART)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서 공동연구, 기술검증 등을 추진하여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성 핵종 생산, 사이클로트론 설치, 진단 영상기술 교류, 인력양성 및 알마티에 설립 예정인 핵의학생물리학센터에 필요한 방사선 생물학 장비 공급 등의 공동 사업을 실시하고, 방사성 의약품 생산기술 및 장비 개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인프라 건설이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측은 카자흐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운송·교통 허브 건설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양측은 철도, 도시 교통시설, 인프라 건설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국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양국의 농업 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하였다.

6. 양측은 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의 상호 교류가 증진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고, 양국 유수 대학 간 학생 및 연구원, 교원, 전문인력의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의 교육 정보화 경험 공유 협력을 증진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카자흐스탄 국립기술대학 간 추진 중인 정보기술교육센터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국가 발전에 있어서 국민 보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보건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카자흐스탄이 추진 중인 보건 분야 개혁을 높이 평가하고, 핵실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미팔라틴스크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 의료장비 지원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술훈련 제공 의사를 표명하였다.

8. 카자흐스탄측은 카자흐스탄 내 거주 중인 고려인들의 민족·문화적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9. 한국측은 카자흐스탄의 2011년 동계 아시아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지원 제공 의사를 밝혔고, 카자흐스탄측은 2012년 여수박람회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10. 양측은 국제 및 지역 정세를 면밀히 논의하고 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국측은 2006년 9월 8일 서명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조약 채택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적극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카자흐스탄측은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11. 양측은 아시아 지역 내 공동 관심사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아시아협력대화(ACD),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지역기구 틀 내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아세안지역포럼(ARF)에 가입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측의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다. 한국측은 카자흐스탄의 2010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및 2011년 이슬람회의기구(OIC) 외교장관회의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였다. 양측은 정례 개최되는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참가국 간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실질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국가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금융·경제 상황 악화에 우려를 표시하고,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국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카자흐스탄측은 G-20 금융정상회의 틀 내에서의 역할 수행 등 세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국제테러리즘, 초국가범죄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 분야에서 신뢰 증진 및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이 양국 관계의 점진적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국측은 카자흐스탄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동 초청을 감사히 수락하였다.

Joint Stat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Occasion of the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azakhstan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2-14 May, 2009

At the invitation of His Excellency, Mr. Nursultan Nazarbayev,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His Excellency, Mr. Lee Myung-bak,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aid a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12-14 May 2009.

In their summit, the two Leaders engaged in a broad exchange of views on the prospects for future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issues of mutual interest.

Both sides affirmed the will to strengthen multi-dimensional cooperation based on the "Declaration of General Principles for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azakhstan" signed on May 16, 1995.

1. The two sides shared the view that the bilateral relations are developing to a new level and agreed to upgrade the relationship to a Strategic Partnership, expanding the comprehensive cooperation in all areas includ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fields, and people to people exchanges.

2. Both sides agreed to exert efforts to increase substantial cooperation in diverse areas including trade and investment, the environment, agricultur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science and technology, nuclear energy, education and culture based

on bilateral relations as well as through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Both sides welcomed the adoption of the "Action Plan on the Promotion of Substantial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azakhstan" which encompasses specific measures for cooperation in industry fields with potential between the two countri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griculture, IT, the environment and culture.The two sides agreed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conducive to increasing interaction between business representatives to deepen and develop cooperation in the economy, trade and investment and highly appreciated the results of the Korea-Kazakhstan Business Forum held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Lee Myung-bak's visit to Kazakhstan.Both sides, acknowledging the dangers of global climate change, expressed their will to fully cooperate in the environmental field. The two sides emphasized the need to expand cooperation for an early transition to a Low Carbon economy utilizing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y, as well as to promote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y.

3. Both sides, acknowledging that energy cooperation is an important element in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greed to explore joint projects in the areas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With a view to implementing joint projects on petroleum related fields, the two sides hoped to expand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hydrocarbon resources, and also to exp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uranium on the basis of the Long-Term Uranium Contract signed in May of 2008. Both Sides welcomed cooperation between businesses of the two countries to proceed with the Balkhash Thermal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 and shared the view tha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project will serve to gradually develop the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uture.Both Sides agre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so that the Agreement on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signed on September 20, 2004 may come into force as early as possible for increase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atomic energy. The Republic of Korea expressed its intention to actively support the development of Kazakhstan's atomic industry.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project of small and medium size nuclear reactors (SMART), the two sides agreed to promote

cooperation in this field such as joint research and technology verification. Both sides agr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on medical uses of radiation and, while implementing joint projects such as radionuclide production, cyclotron installation, exchange of picture diagnosis technology, training human resources and supplying equipment for radiation biology required at the Nuclear Medicine Biophysics Center to be established in Almaty, expand cooperation to areas related to production technology and equipment development on radioactive medicine.

4. Both sides shared the view that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s an important element in continued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epublic of Korea expressed support for Kazakhstan's plan to construct a shipping and transportation hub of the Eurasian continent. The two sides agreed to expand cooperation in the construction of railroads,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5. Both sides,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food security, expressed their will to expand cooperatio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6. Both sides expressed satisfaction at the increase of mutual exchanges in the areas of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and agreed to cooperate on expanding exchanges between students, researchers, faculty and experts of the universities of the two countries. Both sides agreed to increase cooperation on sharing Korea's experience regarding ICT in education for training specialists in Kazakhstan and actively support cooperation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center pursued by KOICA and the Kazakh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7. The two sid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eople's health in the continuous and gradual national development, agreed to exp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ealth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welcomed the reform pursued by Kazakhstan in health related areas and offered to provide support in the form of special medical equipment to the medical institutions in the Semipalatinsk region suffering from the aftermath of nuclear experiments and provide technical training for relevant medical institutions.

8. The Republic of Kazakhstan reaffirmed its will to continue to provide the necessary support for the ethnic community and cultural development of ethnic Koreans in Kazakhstan.

9. The Republic of Korea offered to provide necessary support for Kazakhstan's successful holding of the 2011 Asian Winter Games and the Republic of Kazakhstan expressed its intention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2012 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10. The two sides engaged in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political landscape and expressed their will to make joint efforts for peace and security in Asia and the world. The Republic of Korea valued the active role played by Kazakhstan in the process of adopting the Central Asian Nuclear-Weapon Free Zone (CANWFZ) Treaty signed on September 9, 2006. The Republic of Kazakhstan reaffirmed its support for the Republic of Korea's position to peaceful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the Six-Party Talks while developing mutually beneficial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11. Both side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continued discussions and the efficient resolution of issues of common interest within the Asian region and agreed to expand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CICA, the ACD and OSCE. The Republic of Korea greatly welcomed Kazakhstan's aspiration to join the ARF. The Republic of Korea extended congratulations to Kazakhstan that it is to assume the Chairmanship of the OSCE in 2010 and the OIC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2011. The two sides shared the view that the regular holding of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has been to the benefit of the participants and has increased the pract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and agreed to actively explore specific areas of cooperation.

12. Both sides expressed concern at the deteriorating international financial and economic situation which has a negative effect o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shared the view that the international economic crisis can be overcome

through agreement among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epublic of Kazakhstan recognized the efforts made by Korea in addressing the world financial crisis including the role play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20 Summit. The two sides concurred o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ddressing the new threa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ransnational crimes and agreed to promote trust and to exp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is field.

13. Both sides welcomed the state visit by President Lee Myung-bak to Kazakhstan as providing a valuable opportunity for the gradual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relations. The Republic of Korea expressed its gratitude for the warm hospitality and extended an invitation to President Nazarbayev to visit Korea at a convenient time. President Nazarbayev accepted the invitation with gratitude.

Astana
September 13, 2009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227-14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